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현지 사령관’ 믿고, 트럼프 가능성 대비하라”

(조현동 주미대사)

(대선승리)

안호영 전 주미대사 특별인터뷰

트럼프-푸틴 만나도 기록 안 남겨... 양측 관계 심히 우려
선거 전까지 눈에 띄지 않게 트럼프 주변다지기 나서야

2017년 1월 23일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사흘 만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철수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도 무력화했다. 송유관 건설사업 재추진도 선언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쌓고, 반이민 행정명령도 냈다. 취임 100일 동안 행정명령만 무려 30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착수, 주한미군 철수 검토 등 소강한 일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은 트럼프에 다시 환호한다. 왜 그럴까.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그 지면에는 ▶고물가(바이든 정부 출범 후 20% 상승) ▶우크라이나에 미 국민 세금 과다 지원 ▶이민자 급증(트럼프 1기 대비 3배) 등 3가지 불만이 깔려있다. 이를 트럼프는 교묘히 '분노'로 전환시킨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현재 걸려있는 4개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될 경우 최대 117년 형량을 받고 선거 전

에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미 헌법에는 범법자의 대통령 취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교도소에서 취임식을 하거나 트럼프가 자신을 '셀프 사면'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트럼프에 대해 "입만 열면 뺨"이라 희화화하곤 하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트럼프만큼 자신이 뺨은 말을 잘 실형한 대통령도 드물다. 그래서 더 무섭다. 이런 트럼프를 당시 워싱턴 일선에서 생생하게 마주했던 안호영 전 주미대사(현 경남대 석좌교수)에게 물었다. 그런데 정작 안 전 대사는 '트럼프 2기'의 가능성에 신중했다. "1992년 미 대선 당시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있을 때 아버지 부시가 된다고 누구나 생각했는데 빌 클린턴이 됐고, 2016년 주미대사로 있을 때 누구나 힐러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돼 두 번이나 예측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와 마주했던 안호영 당시 주미대사

김경록 기자

내가 겪은 트럼프

-트럼프 1기 정부 출범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뭐였나.
"선거 기간 중 트럼프의 발언 등으로 미워 한미 FTA에 손을 대려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 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따로 만나 충분히 그 부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반 만에 워싱턴을 찾았을 때였다. 2017년 6월 30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기자들이 들어온 가운데 양국 정상이 한마디씩 모두발언을 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서프라이즈 중의 서프라이즈였다. 아니 시작도 안 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

었다. 전날 만찬에서도 트럼프는 문 대통령을 앞에 두고 계속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철강-자동차 등 한국과의 통상 사안을 문제 삼고 이에 로스 장관이 거들었다. 하여간 예측이 어려운 대통령이였다."

-트럼프 당선 전, 그리고 당선 후 어떻게 정권 핵심들에 접근했나.

"대선 1년 전부터 고민이었다. 공화당의 기존 정치인과 전직 관료에 더해 밀쳐야 본전이라고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뿐 아니라 사위 쿠슈너, 장남 트럼프 주니어에게도 손편지를 써 보냈다. 본전 이상은 건진 게, 모두 내게 답장을 보내왔다. 적어도 입력은 됐다는 이야기였다. 실제 쿠슈너는 취임 전 내게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마이클 플라너까지 소개해줬다.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플라너를 만난 장면이 CNN 등 미 언론에 생방송으로 나가면서 워싱턴의 다른 주미대사들로부터 '어떻게 플라너를 만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물론 영업비밀이니 자세한 이야기는 해 줄 수 없었지만. (웃음)"

김현기 논설위원

▶2면 '안호영'으로 이어집니다

‘한인 첫 연방의원’ 8부 능선 넘었다

앤디 김 상대 후보 머피 하자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의원 탄생을 팔부능선을 넘었다.
뉴저지 연방 상원 의석에 도전 중인 앤디 김 하원의원의 최대 경쟁자였던 같은 민주당 소속 테미 머피 후보가 선거 운동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뉴저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 11월 선거에서 사실

상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머피 측은 24일 언론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가족과 당 중진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선거 운동을 중단하며 6월 4일로 정해진 뉴저지 당내 예선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머피 후보는 필 머피 현 뉴저지 주지사의 아내로 지난해 8월 현직인 밥 멘데스 상원의원의 부패 혐의로 기소

된 이후 출마를 결심하고 김 후보보다 세 달 늦은 작년 11월 출마를 선언했다. 현역 주지사의 프리미엄으로 머피 후보는 당내 주요 중진, 뉴저지 주요 도시 시장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활발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또한 캠페인 시작 후 6주 동안 무려 320만 달러를 모금하며 김 후보 진영을 압도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최인성 기자

▶2면 '앤디 김'으로 이어집니다



앤디 김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후보가 최근 열린 한 당내 행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앤디 김 페이스북]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의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물런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SCAN ME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트럼프 2기, 확장억제로 북핵 해결 나설 것”

▶ 1면 '안호영'에서 이어집니다

-2016년 첫 당선 때는 우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왜 또 미국인은 트럼프에 환호하나.
 “2011년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을 기억하나. 1% 금융자본에 맞선 99%의 싸움이라며 경제 불평등 해소를 주장한 사회운동이었다. 그때 유력 언론들은 ‘조만간 이게 정치운동이 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 했다. 그게 트럼프로 현실화된 것이다. 기존 정치인들은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을 어렵게 이야기하나 트럼프는 꼭 집어서 ‘중국이 저렇게 싸구려 물건을 자꾸 보내니 그런 거야. 그러니 화끈하게 관세를 때려야 해’라며 머리에 쪽 들어오게 외쳤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2기의 한반도

-트럼프 2기의 정부 정책 과제를 집대성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의 국방 분야 집필자 크리스토퍼 밀러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했다. 만약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서에는 (인터뷰 발언과는) 다른 긍정적 측면도 많다. 가령 가장 앞에는 이렇게 썼다. ‘미국 안보에 가장 위협은 중국이다. 그런데 안보상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 군함이 너무 부족하다. 최소 355척은 건조를 해야 한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이제 동맹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조선하면 한국 아닌가.
 인터뷰에서도 밀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미 방위산업에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났다. 이를 재건해야 한다. 재건 과정에서 미국이 꼭 협력해야 할 대상은 한국’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밀러는 인터뷰에서 “북·미 군축협상에 대해서도 ‘나는 왜 안되느냐(Why not?)’란 의견에 찬성하는 편” “이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근본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밀러가 트럼프 1기 후반에 국방부장

관 대리를 하긴 했지만, 북핵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구나,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반면 트럼프 2기 핵심 각료로 거론되는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이 떠올랐다. 오브라이언은 분명하게 ‘북한의 행동을 보면 한국이 왜 핵무장을 하려 하는지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건 옵션이 아니다. 역시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국가안보를 총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따라서 특정 인사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트럼프 2기의 마러, 마중 관계 전망은.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는 공화당, 민주당이 따로 없다. 걱정되는 건 마러 관계다. 트럼프 1기 때 내가 가장 우려했던 건 트럼프와 푸틴이 만나는 데 기록을 안 남긴다는 것이다. 진짜 섬뜩한 이야기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다고 한다. 핵무기를 몇천 개씩 지닌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이 만나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기록이 없다는 게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한국 같은 FTA 체결 국가에도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한·미 FTA 위반이다.”
 -트럼프가 언제 그런 상식적 판단을 하던가.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한국의 트럼프 대응 방안은

-바이든이 다른 인물로 교체될 가능성은.
 “미 역사상 재선에 출마한 현직 대통령이 후보에서 이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맞대결이 될 것이다.”
 -트럼프 2기에 대비해 어떤 조언을 하겠나.
 “뚜정을 열 때까지 모른다. 너무 나가면 곤란하다. 지난 8일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미국을 가바이든을 안 만나고 트럼프만 만났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 눈에 띄게 하지

말고 물밑에서 준비하다가 필요할 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된다.”
 -트럼프 당선 직후 트럼프타워를 방문했던 일본 아베 총리처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건가.
 “물론 만나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보다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아베가 트럼프타워를 가는 걸 보면서 난 좀 일본이 이악스럽게 일을 하는구나, 국가 이미지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점은.
 “일단 탁월한 현지 사령관(주미대사)을 믿어야 한다. 국내에선 ‘일본은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데 우린 뭐하냐’고 지적하는데, 우리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물밑에서 뛰고 있다고 믿는다. 주미 일본대사관이 미 로비회사 25곳을 쓰는데 우리는 5곳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 조현동 대사 스스로 건의할 것이다. 일단은 믿고 성원해야 한다.” 김현기 논설위원

플로리다주, 내년부터 14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론 디샌티스(사진)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이같은 내용을 골자리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면서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에 더해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주 의회는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나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다만 플로리다주의 이번 법안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펜 아메리카 플로리다

지부는 “SNS 위협에 대한 대응은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유타주 등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오하이오주 법은 지난 2월 범위가 넓어서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라고 CNN 방송은 전했다. 아칸소의 경우도 지난 2월 법 시행이 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됐다.

“이스라엘 수일내 라파 지상전 벌일 조짐 없어”

백악관은 25일 이스라엘이 수일 안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격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임박한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 “수일 내에 그것(지상전)이 일어날 것으로 감지되는 것도 없다”고 부연했다.
 커비 보좌관은 또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

은 데 반발한 이스라엘이 고위급 협의팀의 방미를 취소한데 대해 “다소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의가 휴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구속력 없는 결의’에 해당한다면서 “하마스를 추적하는 이스라엘의 능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결의안 기권이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 총리실이 그럴 필요가 없는 시점에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 1면 '앤디 김'에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주요 카운티 세 곳의 당 리더들이 잇달아 김 후보에 대한 선호를 밝히면서 머피 캠프의 열기는 식어갔다. 특히 머피가 거주하는 몬모스카운티에서 있었던 컨벤션 당원 투표에서도 김후보가 57%를 얻으며 압



앤디 김

도하자 당내 분위기가 크게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캠페인을 모두 중단하게 된 머피 측은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머피는 “앤디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뉴저지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머피 진영은 오는 6월 예선에서 김 후보의 득표 과정을 지켜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머피 후보의 낙마로 김 후보의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내다

보인다. 큰 변수만 없다면 당내 세 명의 군소 후보들을 따돌리고 오는 6월 4일 민주당 공식 후보로 낙점될 것이 유력하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머피 후보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뉴저지 퍼스트 레이디로 많은 일들을 해온 머피

와 함께 손잡고 더 나은 뉴저지와 미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2018년 한인 최초로 뉴저지 연방하원에 당선돼 2022년 3선에 성공했으며, 연방상원에 진출할 경우 동부지역 최초의 아시안 상원의원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 최인성 기자

워싱턴 날씨 (°F)

27일(수)	55~47	☁	30일(토)	65~42	☀
28일(목)	56~42	☁	31일(일)	56~44	☁
29일(금)	61~40	☀	1일(월)	54~48	☁

3월 26일(화) 57~44

워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워싱턴 DC AKUS (한미연합회)
2024년도 제 1차 한미 안보 강연회 (US-ROK SECURITY CONFERENCE) 개최
“한미동맹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워싱턴 DC AKUS가 지킨다.”

일시 2024년 3월 30일(토) 2:00~5:00 PM
장소 코리안커뮤니티센터 (Korean Community Center)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22312

연사와 강연 제목 (Speakers and Their Topics)

- David Maxwell (전 UN군 사령부 작전참모, 이정호 (탈북인사): 2:00 ~ 2:45 pm
 “Why is Kim Jong Un Threatening the Alliance and What to Do About It”
 “김정은은 왜 한미동맹을 위협할까,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Greg Scarlatou, HRNK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3:00 ~ 3:45 pm
 “Security and Human Rights: The North Korean Conundrum”
 “안보와 인권: 북한을 둘러싼 난제들”
- Suzanne Scholte, Chair,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자유북한 연합): 4:00 ~ 4:45 pm
 “The Truth will set them free”
 “진실은 북한인들을 해방 시킬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예산은 회원분들과 뜻있는 유지분들의 기증금으로 충당하고 동시에 한국 동포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동포청에 예산을 신청하여 충당한다.

워싱턴 DC AKUS (한미연합회) 회장 : 오인환 / 이사장 : 김휘국

“빠짐없는 투표로 재외동포 힘 알리자”

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
27일부터 4월1일까지 열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가 내일(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된다. 주미대사관(조현동 대사)의 재외선거 관할지역에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각각 1개씩 총 2개의 투표소가 설치된다.

버지니아주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는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센터(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에 마련되며, 운영기간은 총 6일이다. 메릴랜드에 추가로 설치되는 재외투표소는 메릴랜드 한인회 사무실(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에 마련되며, 운영기간은 오는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사용기간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공문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나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재외선거관실은 “투표자는 반드시 국적확인서류(비자, 영주권 증명서, 아



지난 2022년 2월 열린 재외선거에서 당시 이수혁 주미대사 내외(사진 오른쪽)를 비롯 한인들이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 투표에 동참했다

메리칸 사모아 거주중 중 하나) 원본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 없다.

아울러, 재외선거인 등에게 재외투표 교통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버지니아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와 “East Falls Church(Silver, Orange 노선)”지하철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재외투표기간 중 토요일인 3월 30일과 일요일인 3월 31일 이틀간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 정각에 역의 ‘키스&라이드’지

점에서 한인 커뮤니티센터 재외투표소로 하루 총 8회 출발하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매시 30분에 한인 커뮤니티센터 재외투표소에서 East Falls Church역으로 하루 총 8회 출발한다.

강호성 재외선거관은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표가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이라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빠짐없는 투표를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윤 대통령,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 전문직 비자쿼터 협조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며 “미국 각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미 의회 내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의회에는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 의회 연설차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상·하원 의원이 보여준 뜨거운 환대가 아직도 생생하다”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CSGK 대표단은 “미 의회는 한미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특히 한국과 한미관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전문직



윤 대통령, 영 김 하원의원과 악수

비자 쿼터 법안을 비롯한 한국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가운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또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굳건히 억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맹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난주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미 의회에서 한국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지난 2018년 2월 공식 출범했다.

현재 미 상·하원 의원 약 8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계 영 김(공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수도관 염소 소독 기간, 냄새 날 수도

수도당국이 워싱턴DC와 페어팩스 카운티 동부 등 북버지니아 지역 수도관 소독 기간에 염소 소독물 냄새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육군 공병대가 운영하는 워싱턴 수도시설국은 25일부터 5월6일까지 기존 수도물 소독약은 클로라민 살균제 대신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수도관을 살균한다고 밝혔다. 클로라민 살균제는 질소와 염소 화합물로,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평시에 사용하는 소독약이다.

당국에서는 수도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염소 소독을 하고 있다. 염소 소독 기간에는 수도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으며 예전과 다른 수도물 맛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이 상태에서도 안전하며 음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이 기간에도 계속해서 염소 수치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염소 소독 냄새를 피하려면 수도꼭지를 5-10분간 틀어놓았다가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도물을 대형 용기에 1-2시간 담아놓았다가 사용하면 냄새가 빠진다. 김옥채 기자

문닫는 대형 소매매장 계속 늘어

매출 부진으로 인해 폐업하는 소매매장이 계속 늘고 있다.

메이시 백화점은 올해 안에 150곳의 매장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약국-컨비니언 스토어 체인 라이트 레이드는 작년 10월 파산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모두 431개 매장을 폐쇄하거나 폐쇄할 예정이다. 라이트 에이드는 올해 77곳의 매장을 추가 폐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약국-컨비니언 스토어 체인 월그린은 올 8월까지 전국 9천여개 매장 중 150곳을 닫고서 비용 41억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달러 스토어 업계 매출이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패밀리 달러’는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600여곳의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패밀리 달러의 모회사인 달러 트리도 올 상반기 30여곳을 닫을 예정이다.

전자제품 대리점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베스트 바이는 작년 24곳을 폐점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최대 15곳을 폐점할 계획이다. 김윤미 기자

스토킹 신고 앙심 품고 피해자 부모 주택 방화

GMU 학생 유죄 인정

스토킹하던 여성이 접근근지 신고를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과 자동차에 방화를 저지른 피고가 유죄를 인정했다.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 줄리안 다리우스 카라페트코프는 2022년 9월4일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위해 피해자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

과 자동차 2대에 방화를 저질러 20만달러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에서는 피고 강력한 발화 인화물질을 사용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당시 19세의 조지메이슨 대학 학생이 었다는 피고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8일 후 체포됐으며 보석재판이 각각 9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고 있다. 피고는 2022년 초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옥채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센터빌 센터리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내용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근골격계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한미박물관 불투명·사유화·퇴진” 한목소리로 성토

한미박물관 첫 주민공청회

전 이사·타인종도 참석했지만
초청한 현 이사진·시의원 불참
11년째 담보 상황 비판 목소리

한미박물관(이사장 장재민)이 추진 11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첫 주민공청회가 진행됐다.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 한 한미박물관 프로젝트를 두고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한미박물관 주민공청회에는 70여 명이 참석, 프로젝트에 대해 성토하는 한편 이사회에 대한 투명성 요구, 대안 제시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공청회는 “우리는 정말 알고 싶다”라는 한마디로 축약된다. 참석자들은 공청회 내내 이사회 운영과 프로젝트의 진척 과정이 베일에 가려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 후원회’(가칭)의 크리스토퍼 이 건축가는 “건축 디자인을 계속 변경만 하느라 25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뜬금없이 새 디자



한미박물관은 한인사회의 숙원 사업이다. 21일 열린 주민공청회에는 (왼쪽부터) 한미박물관 이사를 역임한 서동성 변호사를 비롯한 크리스토퍼 이(건축가), 케네스 클레인 박사(USC 전 동아시아 도서관장), 마지프 시디키 회장(방글라데시계 커뮤니티협회), 애슐리 함(하버드 웨스트레이크) 양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나서 한미박물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LA총영사관,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LA평통 등 한인 단체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또, 한인 2세 고등학생 10여 명을 비롯한 USC 전 동아시아도서관장 케네스 클레인, 방글라데시계 커뮤니티협회 마지프 시디키 회장, 고민병수 변호사의 부인 캐롤 민 여사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현재 한미박물관 웹사이트(kanmuseum.org)의 경우는 수년 전부터 폐쇄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한미박물관’이라는 큰 글자만 좌측으로 흐르며 반복된다.

전국 단위로 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액 기부자에게만 의존하는 건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주최 측은 공청회에 앞서 헤더 허트 10지구 사무실과 한미박물관 이사회 측에 공식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이번 주민공청회를 앞둔 지난 19일 갑자기 단독 건물 형태의 새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디자인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포모시스’의 이의성 건축가에게 질의서를 보냈지만 24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열기 기자

인을 또 발표했다”며 “이사회 운영뿐 아니라 재정 상태, 진행 상황 등이 모두 불투명한 가운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공공’의 것이 아닌 ‘사유화’ 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이 국제청서류를 바탕으로 직접 조사한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재정 자료(2013~2022)도 공개됐다. 특히 주최 측은 프로젝트가 담보 상태인 상황에서 2017년 이후부터 이사회 수입의 약 60%가 사무국장의 인건비(57만 달러)로만 지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박물관 현 이사장이자 한국일보 회장인 장재민씨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미술사학자이자 연세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했던 최승규 박사는 “누군가 일을 했다면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착공도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계획조차 모르겠다”며 “장재민씨는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영입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박물관 이사회측이 지난 19일 새 건축안을 발표하면서 1990년대 초반 ‘한미박물관’ 명칭으로 진행됐던 사

업과 전혀 다른 프로젝트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미박물관 관장을 역임(2002년 10월~2003년 5월)한 민병용 한인역사박물관장은 “국제청 자료 등을 보면 현 이사회는 1990년대부터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사용해온 IRS의 식별 번호(EIN)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당시와 지금 박물관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주민공청회에는 한미박물관 이사를 역임한 서동성 변호사를 비롯

업소 도둑들 소셜미디어로 ‘공개 망신’



절도 피해를 당한 업주들이 범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대응하고 있다. 코리아타운플라자 마트 입구에도 절도범들의 사진이 붙어있다. 김상진 기자

의류점 업주 CCTV 영상 올려 범인들 자수에 물건값도 전달

절도 피해를 당한 업주들이 범인들이 잡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어 화제다. 한 업주는 매장 물건을 훔친 절도범의 신상을 SNS에 공개하면서 도난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21일 NBC뉴스에 따르면 의류업체 ‘키슨(Kitson)’의 업주 프레저 로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장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들과 용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용의자 중 여성 1명은 심지어 인스타그램 팔로워 5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로 밝혀졌다.

업주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이 여성은 같이 온 남성에게 진열대에 있던 모자를 건네받은 후 다른 모자와 티셔츠까지 더 집어 본인의 롤루레론 가방 안에 넣고 그대로 가게를 나갔다.

로스는 용의 여성의 이름과 직장, 자주 가는 장소 등까지 모두 알린 뒤 공개

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LA 기업들은 그녀를 사업장에 들이지 않을 수 있다”며 그녀가 포스팅한 마켓 ‘에러원(Erewhon)’의 음료 사진을 언급하며 “에러원, 주의해라. 그녀는 식당 ‘노부’와 모든 고급 레스토랑들을 좋아한다”고 경고까지 했다. 또한 그들이 훔친 모자에 ‘내가 좀도둑처럼 보이니(Do I look like I’m a shoplifter)’라는 비아냥대는 문구를 넣은 사진까지 올렸다.

로스가 올린 게시물들은 5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장수아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거부 사유 파악 후 부당하면 재고 요청

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기록 좋다면 다른 보험사 문의 서플러스라인 타주도 알아보기

서민들에게 집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험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CNBC와 보험 업계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주요 원인, 예방 방법 및 대안을 짚어본다.

▶가입 거부 이유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때는 개인이나 주택 리스크가 높은 경우다. 주택 리스크에는 강풍,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포함된다. 지역 범죄율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집이 오래돼 누수 또는 배관 및 배선과 관련한 화재 리스크가 높아도 문제다. 보험 보상 청구 관련도 이유가 된다. 청구 금액과 빈도 역시 갱신 거부



사유다. 이에 더해 집주인이 집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보험사가 참고하는 사항이다. 보험사는 집주인 집에 머무는 기간이 짧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보험을 해약되거나 갱신을 거부한다.

▶거부 시 해야 할 일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거부 사유를 알아본다. 부정확한 정보 또는 부적절한 이유로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윽고 또는 이

전 소유주에게도 보험사에 관해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해서 해당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주로 가입한 보험사를 알아본다. 최소 세 곳 이상 보험 견적을 받아본다.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와 칩(Chubb) 주택보험사 등 유명한 커버리지 제공하거나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에 문의한다.

▶서플러스 라인 보험(surplus line insurance)

일반적으로 3~5회 일반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부를 당한 주택 소유자가 가입 자격을 얻는다. 즉, 일반 업체로부터 가입을 하지 못할 경우, 주 보험국의 '서플러스 또는 엑세스 라인(Surplus or Excess Line)' 규정에 따라서 타주에 본사를 둔 회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해 본다.

서재선 기자

“틱톡, 유저 마이크·자판입력 훔쳐볼 수 있어”

정보 당국, 연방 상원 브리핑 “추적·감시 능력 충격적” 평가

거대 소셜미디어 틱톡이 여러 방식으로 사용자를 몰래 감시할 수 있다고 정보당국이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악스오스에 따르면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전날 연방 상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공개 브리핑을 개최했다.

상원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사용해 미국의 사용자들을 감시하고 자국 이익을 위한 선전을 위한 수준으로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았다.

의원들은 자세한 언급을 꺼렸으나 대중이 알게 된다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추적하는 틱톡의 능력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상원의원은 국가안보 당국자들이 중국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선전과 잘못된 정보를 통해 이를 무기화할 방법을 설명했다.

다른 상원의원은 틱톡이 사용자의 마이크를 감시하고 자판 입력을 이션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리처드 블루먼슬(민주·코네티컷)



안보 당국이 틱톡 앱을 통해 사용자의 음성과 자판 입력을 훔쳐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의원은 “(브리핑의) 세부 수준과 구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그들의 추적, 감시 능력은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브리핑은 미국이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자회사인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연방 하원에서도 유사한 브리핑을 열었다.

하원에서는 지난 13일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가결했다.

크레딧점수 10년만에 하락

장기연체율 18%로 높아져 크레딧이용율·부채액 등은 최대

미국인의 평균 FICO 크레딧점수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FICO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미국인의 평균 크레딧 점수는 717점으로 전년 대비 1점 하락했다. 평균 FICO 크레딧점수가 하락한 것은

2013년 691점에서 690점으로 하락한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에 크레딧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크레딧카드 부채와 각종 청구서 금액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크레딧점수가 계속 하락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지표인 2023년 10월 기준

으로, 1회 이상 페이먼트를 30일 이상 연체하는 국민 비율이 18%에 달했다. 2023년 4월 이 비율은 4%에 불과했다.

전체 대출가능금액 대비 실제 대출금액 비율을 말하는 크레딧 이용률도 35%로, 펜데믹 직전인 2019년 10월의 34%를 앞질렀다. 미국 전체의 크레딧 카드 부채는 1조달러로, 1인당 평균 3100달러로 높아졌다. 크레딧점수는 페이먼트 역사(35%), 부채액(3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김옥채 기자

GPT-5 이르면 올 여름 출시

오픈AI 올트랜 “큰 발전 기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차기 거대언어모델(LLM) GPT-5가 이르면 올 여름 출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GPT-5가 수개월 내에 출시될 예정으로, 일부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GPT-5는 이전 모델보다 “실질적

으로(materially) 더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출시 일정은 여러 요인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GPT-5는 현재 오픈AI의 최신 AI 모델인 GPT-4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GPT-4는 지난해 3월 출시된 바 있다.

샘 올트랜 오픈AI 최고경영자

(CEO)는 지난 14일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한국 스타트업들과 만나 GPT-5가 “언제 출시될지, 얼마나 좋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음 모델에서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모델(GPT-5)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며 “GPT-5의 발전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큰 실수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혜준 기자

스타벅스 머그컵 44만개 화상·열상 위험에 리콜

화상과 열상 위험으로 네슬레USA가 스타벅스 브랜드의 ‘2023 홀리데이 기프트 세트(Holiday Gift Set·사진)’에 포함된 머그컵을 리콜했다.

지난 21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손을 데이거나 베일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스타벅스 브랜드 머그컵 약 44만 개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11온스와 16온스로 구성된 이 제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과 타깃, 월마트 등에서 판매됐다. 금속 코팅이 덮인 세라믹 재질의 머그컵



으로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져 있다.

리콜 대상 제품은 4개의 홀리데이 기프트 세트에 포함돼 팔렸다고 CPSC는 전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www.nestleusa.com/info/contact-us-landing)에서 확인 가능하다.

리콜 제품은 구입한 매장에 문의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서재선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맞춤형 자산의 절인
달인과 함께하시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케어피플 홈헬스
버지니아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메릴랜드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4/15-4/19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테러, 급진 이슬람주의자 소행”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가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소행이지만 테러를 누가 지시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배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은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 미국도 IS가 이 테러에 책임이 있다고 계속해서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이슬람 세계가 수세기 동안 이념적으로 싸워온 급진 이슬람주의자의 손에 의해 이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테러 이후 대국민 담화 등에서 IS를 언급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누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지만, 이제는 누가 그것을 명령했는지를 알고 싶다”며 우크라이나가 테러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정말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에 답을 얻어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중동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테러리스트들이 왜 우크라이나로 도피하려고 했는지,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가려던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했다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테러가 ‘협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누가 이익을 얻는가? 2014년부터 네오나치 우크라이나 정권의 손에 의해 우리나라와 전쟁을 벌여온 자들이 자행해온 시도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테러에 대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와는 관련이 없고 IS가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다른 국가에 주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안보리 휴전 결의 강력 반발

대표단 미국 파견 취소



한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이 언급한 대표단은 앞서 네타냐후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합의한 것으로, 양국 대표단은 피란민이 몰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지상전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가자지구 휴전 요구 결의가 미국의 기권 속에 처음으로 채택된 데 대해 이스라엘이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인질 석방 조건이 없는 이번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결의 직후 성명을 통해 “인질 석방 조건이 없는 휴전을 지지한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전쟁 내내 유지해온(미국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기권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인질을 풀어주지 않고도 휴전이 허용된다는 희망을 하마스에 심어줌으로써(이스라엘의) 전쟁과 인질 석방 노력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사진) 총리는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안보리 결의 직전에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표단 파견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아침 안보리의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테러 용의자 4명 구금...고문·폭행 흔적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망자가 25일(현지시간) 13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체포된 테러 용의자 4명을 잔혹하게 고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발생한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중 한 명인 사이다크라미라차발리조다(30)가 24일(현지시간) 법정에서 풀려나고 있다. (사진 왼쪽) 귀에 커다란 붕대를 붙인 그는 심문 과정에서 귀가 찢리고 망치로 구타당하는 고문을 당했다. (오른쪽)

[AFP-연합뉴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24일 집단 테러 혐의를 받은 달레르존 미르조예프(32), 사이다크라미라차발리조다(30), 삼시딘 파리두니(26), 무하마드수비르 파이조프(19)에 대해 오는 5월 22일까지 공판 전 구금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유죄로 판결되면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들은 심문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모두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고 부은 상태였다. 한 피의자는 휠체어를 타고 의료진과 함께 법정에서 나왔고, 다른 한

피의자는 귀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서 러시아 요원이 그의 귀를 자르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

지키스탄 국적자로 확인됐다. 파리두니와 파이조프는 법정에서 모스크바 인근 포돌스크 세공공장과 이바노보의 한 이발소에서 일했다고 진술했다.

박소영 기자

파밀리아 성당, 2026년 완공된다

초석 놓이고 144년 만에

음사가 탑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바르셀로나의 대표적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2026년 완공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6년은 가우디 사망 100주기가자 1882년 초석이 놓인 지 144년 만이다.

에스테베 캄프스 성당 재단 회장은 최근 새 준공 일정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당내 최고 높이인 172.5m의 중앙 첨탑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포함해 성당을 준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모두 갖춰졌다고 말했다.

성모 승천 예배당과 예수 그리스도의 탑은 각각 2025년과 2026년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성모 마리아 탑과 마르코·루카·요한·마태오 복

하지만 성당 입구로 이어지는 계단 진입로는 2034년까지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초기 성당 인근은 개방된 농지였으나, 이후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도시 두 블록에 걸친 진입로를 건설하려면 약 1000개의 주택·상업 건물을 수용해 철거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가우디의 설계에 계단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캄프스 회장은 “1915년 가우디의 서명이 담겼고 지역 당국에 제출된 설계도에는 계단이 있다”며 바르셀로나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연간 500만명이 방문하는 유럽의 대표 관광 명소다.

현예슬 기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AFP-연합뉴스]

트럼프 내달 첫 형사재판 일정 확정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판사 “더는 연기 안돼”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형사 재판이 다음 달 개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

통령이 출석한 공판에서 예정대로 4월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사건 본재판을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톰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문서를 뒤늦게 제출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어도 90일 이상 연기하거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머천 판사는 “피고인 측에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며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머천 판사는 검찰의 추가 문서 제출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3월 25일에서 4월 15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식당 달은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식당 달은 자리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7,100 SF, 와이마켓 MD	주18만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벽 9000 SF, 버지니아원든
식당 달은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도장	상가
식당 달은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 부근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풀스처치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식당 달은 자리 7800 SF, 임대, VA 에쉬번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식당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VA 맥클린	사무실	주백
	에난테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콘도 방2, 화장,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클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www.dwellwashington.com

크리스천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Since
1996

의료비 나눔 사업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CA와 NJ 지역의 CMM 회원은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vel 내용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unit	\$ 195	\$ 150	\$ 90	\$ 45
2units	\$ 365	\$ 290	\$ 180	\$ 90
3units	\$ 485	\$ 430	\$ 270	\$ 135
의료비 지원범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예방검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입원, 수술	입원, 수술
본인 부담금	\$500 /년	\$500 /건	\$1,000 /건	\$5,000 /건

* 모든 Level에서 질병당 \$150,000까지 지원합니다.

11/2023 기준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773-777-8889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CMM기독교의료상조회는 로고스선교회 산하 기관으로 501(c)(3)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이며,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유사 단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전기 먹는 하마, AI '샘' 이 해법 알려줬다 '동네원전' 확보하라

(샘 올트먼)

'AI 시대' 게임체인저 된 미니원전

PC시대 주역 빌 게이츠와 생성 인공지능(AI)시대를 연 샘 올트먼,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의외의 분야에 있다. 원자력 발전이다. 대형 원전이 아니라 이를 10분의1크기로 줄인 '미니원전', SMR(Small Modular Reactor)이다. 빌 게이츠는 2008년 SMR 기업 '테라파워'를 직접 설립했고, 샘 올트먼도 2014년부터 SMR 개발사인 '오클로(Oklo)'에 투자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이들이 왜 중후장대한 하드웨어 원전에 꽃혔을까. 뜯어보면, 이면엔 AI 파편을 잡기 위한 비책이 있다.

김철용·윤상연 기자

1 AI 파편 잡는 비책처 SMR 빌 게이츠, 아예 회사 설립

◆AI의 주식(主食), 전기=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내듯, AI도 전기가 있어야 데이터를 학습하고 사용자 요구를 처리한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 생산원은 AI시대 개막과 함께 예고된 전쟁이다. 요즘 AI 관련 힘깨나 쓴다는 기업 머릿속엔 '에너지'라는 단어가 가득하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AI 시대에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에너지 혁신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SMR 스타트업인 오클로를 인수했고, 핵융합 연구 스타트업인 '헬리온 에너지'에도 3억7500만 달러(약 4900억원)를 직접 투자했다.

2027년까지 AI 서버가 연간 소비할 에너지의 양은 85~134테라와트시(Twh)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웨덴의 연간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미지·영상까지 처리 가능한 멀티모달 생성AI 서비스가 늘면 전기 사용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 IT 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미지 생성 AI는 텍스트 생성 AI보다 전기를 61배 더 많이 쓴다. AI 탓에 미국 내 전기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전기는 더 필요한데 친환경 에너지는 고비용이라는 한계가 있다. 탄소를 배출하는 화력 발전소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0으로 낮추겠다'(넷제로·Net Zero)는 국제조약 '파리협정'에 위배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SMR이다.

◆SMR, 뭐가 다른가=한국말로 '소형모듈원자로'. SMR은 일반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공장에서 전부 제작 가능해 설치 비용이 적다. 냉각수도 덜 필요해 바다가 아닌 내륙 한복판에

도 지을 수 있다. 특히 전기가 필요한 곳 바로 옆에 원전을 설치할 수 있기에 SMR이 보완재가 아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란 기대가 나온다.

그래도 개수가 많아지면, 더 위험한 거 아닐까. 최근 원전 사고는 대부분 핵분열로 에너지를 내는 연료봉을 식히는데 실패해 발생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그랬다. SMR은 소규모라 전기가 끊겨도 자동으로 열을 식히는 게 가능한 수준이다. 열밀도(단위 부피당 나오는 열의 양)가 높은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 공기에 닿으면, 온도가 낮아져 내려오는 방식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은 "중대사고 발생 확률 기준, 최신 원전은 10만년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하는 수준으로 설계됐다"며 "SMR의 경우 10억년에 한 번이 목표라 방사능 유출 등 사고 가능성이 일반 원전보다 낮다"고 말했다.

또 SMR은 용기 안에 모든 부품을 넣은 일체형이다. 공장에서 제작을 마치고 그대로 실어 원하는 곳으로 옮긴다. 10조~15조원 소요됐던 건설 비용을 5000억원까지 줄일 수 있다. SMR 형태가 옆으로 뚝뚝하지 않고 위아래 길쭉한 이유도 육상, 철도 운송을 위해서다.

2 원전 비용 30분의 1로 줄여 업계 '사고확률 10억년 1번'

전기를 쓰는 현장 근처에 만들 수 있어 송전탑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원자력 연구기관 관계자는 "SMR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방안일 수 있다"며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대안이 딱히 없다"고 말했다. 통상 SMR은 16~23m로 아파트 8~9층 높이만 한 크기다. 전기를 많이 먹는 반도체 단지, 데이터센터 옆에 놓으면 적당한 크기다.

◆절대강자 없는 춘추전국시대=S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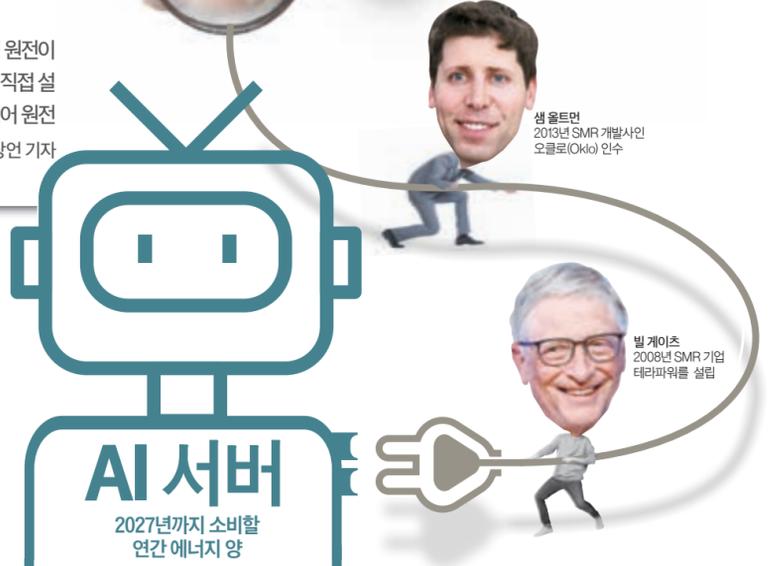
시장은 현재 절대 강자가 없는 초기 단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개발 중인 SMR 디자인은 80개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운용 중인 국가는 러시아(1기), 중국(2기)뿐이다. 미국도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러시아, 중국은 안전성 검증 기준이 선진국에 못 미친다. 현재로서는 미국 민간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NNL)은 2035년 SMR 시장이 최대 5000억 달러(약 650조원), 원전 개수로는 300기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기업들도 제조업 역량을 앞세워 뛰어 들었다.

미국 민간 기업 가운데 2007년 설립된 뉴스케일 파워가 개발 중인 SMR의 최대 특징은 안전이다. 전기 출력을 낮춘 SMR을 12개씩 묶어서 설치한다. 중대 사고가 발생해 핵연료봉 냉각이 어려워질 때 원자로가 과열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시간이 기존 원자로가 3일 정도라면, 뉴스케일의 SMR은 무기한이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0년 8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아 설계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는 주요 SMR 기업보다 상용화 속도가 느리지만, 가장 발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원자로를 냉각시킬 때 기존에 쓰던 물 대신 나트륨(소듐)이나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기

기존 원전 대비 SMR 장점
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

SMR	대형 원전	
일체형	주요기기 배관연결	설계
100~300MW	1000~1400MW	출력
1~3조원	5~10조원	건설비용
5~7년	10년 이상	건설기간
10억년에 1회	100만년에 1회	중대사고 빈도



AI 서버

2027년까지 소비할 연간 에너지 양

85~134 Twh(테라와트시)

국가별 전기 소비량	단위
중국	8090Twh
미국	4082
일본	939
한국	568
벨기에	78
포르투갈	50
뉴질랜드	39

연도: 2022년. 자료: 세계 에너지 및 기후 통계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현황
출력: MW(메가와트)

국가	노형	출력	완공목표
한국	i-SMR	170	2028년 인허가 목표
미국	뉴스케일	77	2028년(루마니아)
중국	ACP100	125	2025년(건설중)
캐나다	MMR	5	2026년
영국	UK SMR	470	2030년

3 절대강자 없는 춘추전국 원자력연구원도 도전장

시작했고,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남부 하이난성 창장에 '링룽 원'도 짓고 있다. 러시아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배위에 SMR 원자로 2기를 얹은 '아카데미 로모노소프'를 가동 중이다.

한국도 제조역량을 앞세워 SMR 시장을 공략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KRISS)이 2012년 자체 개발한 SMR인 'SMART'는 그간 건설 부지 확보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캐나다로 수출을 시도 중이다. 강한욱 한국원자력연구원 SMART개발단장은 "자국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으로부터 SMR이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국제 사례는 2012년 SMART가 처음인 만큼 국내 기술 완성도가 높다"고 말했다.

SMR의 장점이 분명하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도 수두룩하다.

우선 기술 표준화가 쉽지 않다. SMR 내부 핵연료 냉각재로 물, 나트륨, 납, 고온가스, 헬륨 등이 채택되고 있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어 아직까진 글로벌 표준이 없다.

가장 큰 과제는 여론이다. 이론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과 '아찔한 원전'이라는 현실적인 걱정은 별개다. SMR이 상용화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원모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칼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Hair **Z**one

20주년 기념 스페셜!!

20주년 특가 이벤트 !!

- Mens Hair Cut
- Seniors (Up to 65)
- Kids (Under 15)
- Military

\$19,99

Jacky, Ellen 제외



Body Massage **\$49,99** (애난데일점)



Ellen

Business Hours

MON - SAT 10AM - 6PM
WED, SUN CLOSED

Burke

202-580-9398

8985 Hersand Dr
Burke, VA 22015



Jacky

Business Hours

MON - SAT 9AM - 7PM
SUN 12PM - 5PM

Annandale

703-750-1020

6920 M Bradlick Shopping Center
Annandale, VA 22003

뉴욕·한국·일본에서 30년 경력 스타일 리스트

바버 or 미용사 / 바디 마사지사
풀 타임 / 파트 타임 구함

Hair Zone 예약 App Download



Apple



Android

Hair **Z**one

한동훈, 여의도역 20분 인사... 출근길 시민, 앞만 보고 갔다

오전 8시 5분출구, 시민 다수 무관심 한 “제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면제” 민생정책 꺼내며 정권심판론 돌파 당내 “스피커 늘려야”... 유승민 거론

의정 갈등의 증세자를 자임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총선 지휘자로 돌아와 1인 다역을 소화했다. 출근인사→저출생 대책 발표→격전지 지원→불법 사금융 대책 발표로 이어진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며 다소 기운 판세를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모처럼 한 위원장의 입은 ‘반이재명’이 아닌 ‘민생’을 향했다.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인구 위기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이라고 말하며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등록금 지원 정책 외에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현행 소득 요건 연간 1억3000만원 이하)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세 자녀→두 자녀) ▶전기·가스 요금 감면 및 대중교통 할인 두 자녀 가구로 확대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 국민의힘은 반사회적 불법 채권 추심의 경우 대부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홍석준 선대위 상황부실장은 “피해자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매일 폭발력 있는 민생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 한 위원장이 맞닥뜨린 수도권 민심은 차가웠다. 한 위원장은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20여분간 별인 출근길 인사 때 고령층 일부가 그를 향해 목례를 하거나 ‘셀카’를 요청했지만 시민들은 대체로 무관심했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다가와 “산업은행 이전은 왜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한 위원장이 “부산 이전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공약”이라고 대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한 서울 후보는 “당원이 동원되지 않은 첫 유세라 한 위원장도 당황했을 것”이라며 “이게 수도권 민심”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시내 5곳(여의도·왕십리·신당동·암사동·천호동)에서 거리 인사를 했다. 전날 “상대보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손잡고 우리의 진정성을, 이 선거의 중대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앞에서 박용찬(영등포을) 후보와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을 피력하자”고 강조한 뒤 한 장소에서 메시지를 쏟아내던 패턴에 변화를 준 것이다.

그렇수록 ‘한동훈 원톱’ 체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늘고 있다.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은 YTN 라디오에서 “스피커가 너무 하나로 쏠려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후보는 “당 지지율이 올라 내심 기

대했지만 한동훈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진여 성향 신평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위원장의 당무 독점, 전횡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장은 영입인재, 대통령실과 조율된 정책 등을 현장에서 깜짝 발표하곤 했다. 전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의 면담도 “당일 아침 알았

다”(선대위 관계자)는 이가 많다. ‘한동훈 올인 체제’ 극복 카드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반복 거론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는 격전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연계 의원은 “대통령 동의 없이 투톱 선대위로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심새롬·김기정 기자

6070세대 투표율, 2030보다 훨씬 높아 “인구수 큰 차이 없지만 파급력 다를수도”

지난 총선에선 60대 80%, 30대 57% “노인공약 늘리면 미래세대에 부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양당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공통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양당 모두 ‘재정지출 구조 조정’이라는 두루뭉술한 설명만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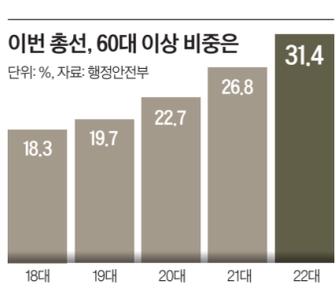
#지난해 1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약속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장 “주 7일 제공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양당은 10대 공약에 이를 반영했는데 연간 1487억원(주 5일 기준)에 이르는 재원에는 별도 설명이 없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이 역대 총선 가운데 유권자 연령대가 가

장 높은 선거가 되면서 ‘노인 포퓰리즘’ 공약이 판친다. 재원도 고려하지 않은 단발성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1395만 110명으로 이번 선거 유권자인 만 18세 이상 4438만549명의 31.4%에 달한다. 18~29세와 30대를 합친 비중(31.2%)보다 60대 이상 비중이 더 큰 것은 이번 총선이 처음이다. 60대 이상 인구 비중은 18대 총선 18.3%, 19대 19.7%, 20대 22.7%, 21대 26.8% 등으로 점차 늘었는데 이번 총선은 증가 폭이 눈에 띄게 크다.

후보자 연령도 높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22일 이틀간 접수된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의 평균연령은 57.8세다. 4년 전 21대 총선 평균연령 54.8세보다 3세 늘었다. 집계가 시



작된 18대 총선(49.2세) 이후 연령대가 가장 높다. 유권자도 후보자도 역대 최고령인 ‘고령화 선거’가 개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겉으로는 청년 정치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노년층 표심에만 관심을 두는 현상이 커질 것이라 지적도 나온다.

양당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은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두 공약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총선 국면이 되자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간병비 급여화, 간병 비용 연 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묶어 발표했다.

간병비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복지부 추산 연간 최소 15조원의 비용은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 90조원의 17%에 달한다. 202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 국민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양당의 경로당 점심 제공 공약 역시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평가다. 현재도 정부와 지자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매비,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약 8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보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향후 4년 이내에 노인복지주택 10만 호 공급을 정책으로 내걸었다. 두 사안 역시 전문학적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에 AI 안전로봇 제공(국민의힘) ▶노인 급식 도우미(민주당) 등 선심성 공약도 여럿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노인을 위한 공약을 늘리게 되면 미래 세대가 피해 볼 수 있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펴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지우면서 안정적인 노인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주요 변수로 ‘고령화’가 부각되면서 정치권에선 “어른조사와 /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언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3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꼭,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페어팩스 콘도

방2+와2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와3, 차고2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5, 1,496 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 1,360sqft, 1985년

\$50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메릴랜드 / 301-399-0140 D.C. / 301-399-0140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윤대통령 연이틀 대화 제의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강행

윤 대통령 "의료계와 긴밀 소통을" 의대교수협 "증원 철회해야 해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화를 촉구했으나, 의대 교수들은 25일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시간 축소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재차 대화 제의까지 취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6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해 왔다. 행정처분 유예에 대해 이날 복지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25일 신촌 연세의료원에서 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김현동 기자

는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연건동 서울대의대에서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발생 이후 처음으로 강경론을 굽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어졌다.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과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총회를 개최한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오후까지 모인 사직서를 의대 학장에게 일괄 제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4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대의대 767명 교수 중 433명도 이날 사직서를 냈다.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재검토가 사태 해결의 선결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9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의교협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이 25일 오전 서울 안암병원에서 열린 '교수 총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수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인과의 대화 협의체 구성을 지시한 것에 대해 "과거보다 진일보한 제안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제안의 구체성이나 다뤄야 하는 내용이 자세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0명이 아닌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숫자를 제시할지 여부에 대해선 "저는 증원 백지화가 곧 '0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학적인 사실과 정확한 추계, 의대 교육 및 전공의 수련 여건을 반영한 결과가 나온다면 누구나 (증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당장 의료현장을 비우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의 목표는 의

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지난달로 예정됐던 백혈병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이 연기된 환자 피해 사례 31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 가능성이 있지만, 보건 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됐다.

한편 정치권에선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달 전문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그동안 의사 집단 행동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과격으로 가는 건 막아야 한다는 당정 간 공감대가 단초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에선 의대 정원 확대가 총선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도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최소한의 출구전략이 필요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남수현·박태인 기자

5월 의대 정원 확정 앞두고...대학, 변수에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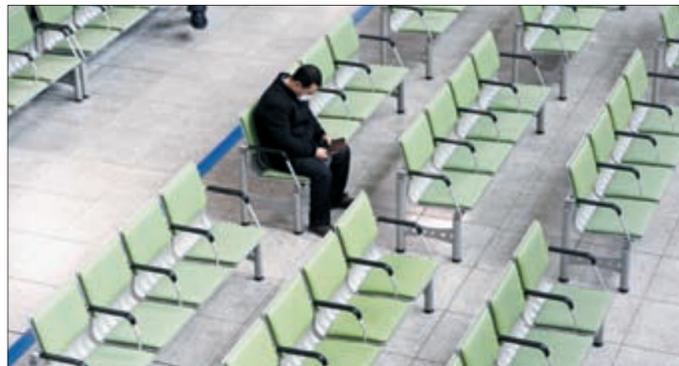
교수 반발 커, 의정 갈등 새 국면 의대 인증 평가도 또다른 걸림돌

"내부에서는 아예 (배정된 증원분) 감축되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지는 의견도 나옵니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 처장은 25일 향후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 이후 상수로 여겨졌던 '2000명 증원'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수는 의대 교수와 학생의 반발이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앞서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24일 기준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절반가량(48.5%, 9109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정부는 여전히 "정원 조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교수·학생의 강경 기조가 지속될 경우 정원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에 나선 25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의 수납 창구 앞 환자 대기석이 한산하다. [뉴스1]

다. 전날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원칙 대응에서 협상 쪽으로 태도 변화를 보이자 이런 관측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증원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00명 증원이 발표됐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변동된 게 없다"고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의 의대 인증평가도 증원의 걸림돌로 꼽힌다. 의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의

평원은 교육부가 지정한 의과대학 교육 평가 인증 기관이다. 정기적 평가 외에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날 경우 별도의 평가를 시행한다.

전날 의평원은 성명서에서 "증원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하나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에서 불인증 받는 대학은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교육계 안팎에선 의평원의 '불인증'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의평원 입장에서도 불인증 의대를 양산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평원 성명서에 대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법적으로도 정원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다. 고등교육법 60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중략)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

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계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엄밀히 말하면 대학이 증원분보다 감축해 신입생을 뽑더라도 교육부장관이 '조치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다만 대학 입장에서 교육부와 관계 설정이 중요한 만큼 배정받은 정원을 먼저 줄이겠다고 나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총선이 의대 증원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대학들이 대학 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입생 모집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총선 후인 5월 말까지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총선 이후) 증원에 드라이브를 거는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질 경우 대학 내에서도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이름을 요구한 사립대 총장은 "우선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투자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만 총선 이후 교육부·정부의 의지를 잘 파악하는 게 숙제일 것 같다"고 했다. 이후연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사업체 세금 보고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북, 돌연 “기시다, 김정은 만남 원해” ... 한·미·일 흔들기?

김여정 “일본, 회담 제의” 일방공개 기시다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또다시 밝혔다. 지난달 15일 담화를 낸 후 한 달 열흘만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총리)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공개했다.

그는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견 골목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이 말한 주권적 권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다.



기시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달 15일 담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임에도 김 부부장이 비슷한 담화를 낸 것은 북한 역시 정상회담 개최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이 물밑 협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결례를 범했음에도 이날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0%대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인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그만큼 회담 개최 의지가 강하단 뜻이다.

그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상대가 있는 얘기”라며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총리 직할 수



또 탱크부대 간 김정은 24일 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부대식당에서 쌀밥에 고기 등을 먹는 군인들을 보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 수위와 내용을 보면 일단 양측은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납치 이슈 등 주요 의제를 놓고 어느 정도 선에서 논의할지를 놓고 물밑에서는 물론 공개적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여정의 연이은 담화와 같은) 공개 압박 전략은 실무 접촉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실무선에서 타협이 어려운 만큼 총리-국무위원장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조·일(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라고도 했다.

한국 외교가에선 지난 몇 달간 북·일은 중국 베이징과 동남아 등에서 실무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일 접촉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며 “일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한·미·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북극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정영교 기자**

신문협회, 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철회 촉구

민원이 들어온 기사에 ‘정정·반론 보도 청구 중’이라는 알림을 표시하기로 한 네이버 뉴스 서비스 운영방침을 두고 언론사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가 사실상 언론중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권력 감시·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일간 신문 및 통신사 54개를 회

원사로 둔 한국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는 이번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방침은 정정보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공직자 등이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 찍어 보도 신뢰

도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언론이 자기 검열 과정을 강화하게 돼 권력 감시나 비판 보도에 대한 추가·후속 취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네이버는 정정·반론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서면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던 정정보도 등 청구 절차를 온라인 청구 페이지를 만들어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불편했던 절차를 간편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이전에도 1년에 10여 회 정도 신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7조 2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포털)는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협회는 “해당 규정은 2011년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며 “규정 위반에 대해 입법권자는 별도의 벌칙 조항을 두지 않은 만큼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권유진 기자**

이승만 동상 관람객, 건국전쟁 개봉 뒤 50% 늘었다

이승만(1875~1965)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세운 이 전 대통령 동상을 찾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

25일 칠곡군에 따르면 이달 1~24일 다부동전적기념관 방문객은 1만219명으로, ‘건국전쟁’ 개봉일(2월 1일) 이전인 1월(6737명)보다 50% 이상, 2월(7270명)보다는 40% 이상 늘었다. 향나연 다부동전적기념관 운영팀장은 “지난 1월에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건국전쟁’을 개봉한 지난달부터 한국전쟁의 영



24일 다부동전적기념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학생들. [사진 칠곡군]

웅 백선엽 장군(1920~2020) 동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찾고 있다”며 “영화 상영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 동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 향 팀장은 “전세버스를 타고 다부동전적기념관을 찾은 단체 관광객이 이 전 대통령 동상으로 직행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윤옥여(45·칠곡군 왜관읍)씨는 “아이와 함께 동상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놓고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직장인 엄복태(41·서울시 강동구)씨는 “영화를 관람하고 이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 동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찾아왔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칠곡=김정석 기자

중국 구금됐던 축구 대표 손준호 귀국

작년 6월 구속, 319일만에 풀려나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32·사진)가 319일 만에 풀려나 25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손준호 선수가 풀려나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 소속으로 뛰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상하이 흥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던 연행된 뒤 같은 해 6월 구속 수사로 전환됐다.

라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이 손준호에게 적용했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괴죄’.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권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손준호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근평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p>스프링 필드 타운홈</p> <p>\$670,000</p> <p>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한 집 지하 워크아웃</p>	<p>페어팩스 싱글홈</p> <p>\$785,000</p> <p>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함 지하 Full Bath, Walk Out</p>	<p>페어팩스 타운홈</p> <p>\$800,000</p> <p>방4, 화4.5, 차고2,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덱, 커다란 부엌</p>	<p>리스버그 싱글홈</p> <p>COMING SOON</p> <p>방5, 화5, 차고2 4835 Sf 2019년산</p>	<p>페어팩스 타운홈</p> <p>COMING SOON</p> <p>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 전체 리모델링함</p>
--	---	---	--	--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어정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우리말 바꾸기

들렸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렸다.” “귀가길에 향구에 들러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렀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다,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리-’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향구에 들러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러’를 ‘들르’로 고쳐 써야 바르다.

올해 처음 치러진 미 대입시험 SAT의 시험일이던 9일, 남가주 곳곳에 설치된 시험장마다 수백 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목격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UC는 물론 주요 사립대들이 대입 전형에서 SAT 점수 제출 의무화 규정을 폐지했지만 이날 시험장에서 만난 학생들의 모습과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날 만난 한 한인 응시생은 “조금 늦게 신청했는데 이미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은 자리가 없었다”며 “집에서 40마일 넘게 떨어진 곳에 겨우 자리가 남아서 오늘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SAT 시험장은 대부분 신청자가 조기 마감되고 있다. 오는 5월 4일 실시되는 SAT 시험도 등록 마감일이 아직 3주 넘게 남아지만 현재 LA한인타운 인근 25마일 안에 등록이 가능한 시험 장소는 전체 8곳 중 1곳만 남아있다.

응시생 규모도 증가했다. SAT 시험을 관리하는 칼리지보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SAT를 치른 학생은 미전역에서 19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73만 명) 대비 1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아시아 학생 응시자 수도 늘었다. 아시아 학생 응시자 수는 2022년 17만여 명에서 1년 만에 19만여 명으로 역시 10% 넘게 증가했다. 아시아 학생 응시자는 전체 응시자의 10% 규모이지만 평균점수는 모든 인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중앙칼럼

다시 돌아온 대입 시즌 SAT 어찌나



장연화
LA 중앙일보
사회부 부국장

해 능력 있고 다양한 학생들을 캠퍼스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SAT 점수 제출의 무화를 없앤 것이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학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SAT 점수를 없앤 후 저소득층 학생의 합격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또 다른 이유는 신입생들의 들쭉날쭉한 학업 수준 때문이다. SAT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파악했던 대학들이 에세이와 고등학교 성적만으로는 지원자들의 실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교육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봄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가을 예비 대입 지원자들인 고등학교 11학년생들은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대입 지원서를 준비해야 한다.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어떤 전공을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자신에 맞는 대입 전략을 찾아 만들어야 할 때다.

SAT 점수의 중요성은 변화하지만, 노력과 준비는 언제나 핵심이다. 나아가, 대학의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대입 시즌은 늘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준비는 결국 성취로 이끌어줄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SAT 시험 응시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에는 전체 고교 졸업생 49만5000명 중 25%에 해당하는 12만3000명이 SAT 시험을 응시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반 4명 중 1명꼴이다. 반면, 2022년에는 전체 고교 졸업생 중 21%인 10만2000명만이 시험을 봤다.

가주 출신 학생들의 입학을 넓히기 위해 UC와 캘스테이트(CSU) 캠퍼스가 대입시험 점수 제출 규정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상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요 대학들이 SAT 점수 제출 규정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이비리그 대학 중 이미 다트머스, 브라운, 예일대는 내년부터 지원자들에게 대입 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도 대입시험 점수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MIT는 당시 “SAT 점수는 지원자들의 실력을 더 잘 평가하도록 도와준다”며 “표준화된 시험 결과를 반영한 평가를 통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열린광장

정치인과 가장행위

〈假裝行爲〉



윤경중
연세목회자회 총경회장

죄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 여자는 누군데요?” 신부가 이렇게 묻자. “그 여자의 이름을 차마 말할 수가 없네요.” 돌쇠의 말을 듣고 신부가 말했다. “그럼 저 뺨 가게 주인 선희씨가요?” 돌쇠가 아니라고 말하자 신부가 또 물었다. “아 그럼 주점 하는 미숙씨가 맞죠?” 이번에도 아니라고 하자 신부가 다시 말했다. “알았다. 꽃가게 진애가 틀림없죠?” 돌쇠가 또 아니라고 말하자, 신부는 이제 참회는 끝이라면 돌쇠를 성당에서 내보냈다. 그런데 성당에서 나온 돌쇠는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다. “야 성공이다. 내가 장난칠 여자 셋의 이름을 알게 됐단 말이야!”

실제론 악하지만 선한 척하는 사람들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뺨칠 정도의 머리를 쓰는 무리다. 많은 정치인도 이에 포함된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안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론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세찬 바람이 분 뒤 하늘을 보니 푸른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구름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니, 구름이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내가 착한 사람의 모습도, 모진 사람의 생김새도 그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까마귀 한 마리가 훅 날아가며 나의 예술 감각을 망치고 말았다. 이때 내 입에서 “흥측한 까마귀 놈”이란 욕(?)이 튀어나왔다.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를 흥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까마귀는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반포조(反哺鳥)로 알려진 효조다. 까마귀에 이어 흰 비둘기 한 쌍이 쏜살같이 날아갔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다. 그런데 집비둘기 무리에 야생 비둘기가 섞이면 난폭한 비둘기 떼가 되고 만다.

여기서 새들과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 이 세상엔 모진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질지만 착한 척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큰 문제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곧, 가장행위(假裝行爲)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모진 사람보

다 더 영특하지만 무섭다. 가장행위와 관련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한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돌쇠씨 아니야. 웬 바람이 불어서 성당엘 다 찾아왔소.” 평소 못된 것만 하던 친구가 성당을 찾아온 것에 신부는 놀랐다. “저 신부님, 제가 오늘 신부님을 찾아온 것은 저의 여자관계 때문에 속죄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신부는 아내와의 이혼 문제를 상의하러 온 줄 알고 이렇게 말했다.

“돌쇠씨 부인은 매우 착한 여잔데...” 신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돌쇠가 말했다. “신부님, 그게 아니고요. 저와 사귀는 여자에 대해서 속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more ▶ www.sk-pest.com

BED BUG

빈대퇴치! ELIMINATE!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skpmva@gmail.com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 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채용 공고 버스투어 가이드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말!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윈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4월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22~5/5 \$4,390+항공

4월 정통 동유럽
 8박9일 4/22~4/30 \$3,290+항공

4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6박7일 4/29~5/5 \$2,890+항공

4월 정통 서유럽
 10박11일 4/22~5/5 \$3,490+항공

5월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5/21~6/2 \$3,890+항공

5월 그리스 & 터키
 10박11일 5/6~5/16 \$2,890+항공

6월 아이슬란드
 8박9일 6/4~6/12 \$5,690+항공

6월 스위스 알프스
 8박9일 6/18~6/26 \$3,990+항공

윈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레나 고 윤태웅
 ☎. 703.663.8534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5/7~5/17 \$3,190+항공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6/28~7/8 \$5,290+항공

엘리버드 스페셜
 여행 3개월 전에 \$3,000이상의 여행패키지를 예약하시는 고객분들께 \$100 off (말인은 출발일 기준이며 디파짓 고객만 적용됩니다)

6월 캐나다 록키
 5박6일 6/30~7/5 \$2,290(항공포함)

8월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8/9~8/19 \$5,290+항공

8월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8/15~8/21 \$2,990(항공포함)

9월 영국 일주
 11박12일 9/02~9/13 \$5,890+항공

9월 그리스 & 터키
 10박11일 9/25~10/5 \$2,890+항공

10월 독일 일주
 13박14일 10/03~10/16 \$5,690+항공

10월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10/08~10/18 \$3,190+항공

10월 프랑스 일주
 13박14일 10/17~10/30 \$5,690+항공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4/16~4/26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4/22~5/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4/22~5/05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4/22~4/30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4/24~5/05 호주 & 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4/29~5/05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5/03~5/12 바르셀로나 & 지중해 크루즈
 9박10일 \$4390+항공

5/06~5/16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07~5/17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3990+항공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엘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인사이드 \$1990(항공포함),
 발코니 \$2590(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엘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9/17~9/30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17~9/25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9/24~9/30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11일 \$2990+항공

9/25~10/5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 & 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회)
 9박10일 요점문의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요점문의

11/12~11/25 이집트 & 이스라엘 & 요르단
 13박14일 (사바산)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 & 요르단
 10박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Korea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3-2024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11일 \$2990+항공

1차 4/16~4/26 4차 10/15~10/25
 2차 6/18~6/28 5차 10/22~11/1
 3차 9/24~10/4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34인승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 / 외도+해금강유람선 / 정동진 레일바이크 / 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 / 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 / 여수 소노캣 / 거제 소노캣 부산 그랜드조선 / 경주 라한호텔 / 속초 롯데리조트 / 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고국 1~5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5일 다낭 \$499+항공
 3박5일 대만 \$690+항공
 3박5일 싱가포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5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카 \$999+항공
 3박5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토요 특선 당일 투어

필라델피아 4월 6일 \$99

네추럴 브릿지+사파리 5월 4일 \$125

NY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센트럴 파크 6월 22일 \$99

노퍽 보타니컬 가든 7월 20일 \$109

워싱턴 벚꽃길 도보여행 \$89 (4인이상 수시 출발)

상만의 벚꽃 런치 크루즈 3월 29일, \$189

성극 **대니얼** \$199 5/16, 5/30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미동부 5박6일 \$1350 (4월 22일 대령버스출발)

나이아가라/토론토/천성 몬트리올/퀘벡/플래츠버그/뉴욕

핵심적인 동부 명소 관광지만 쏙쏙

뉴욕 1박2일 \$399

나이아가라 2박3일 \$650

미동부 베스트셀러 **뉴욕브루클린 나이아가라** 3박4일 \$899

뉴욕 1박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8박9일 \$1450+항공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서부 4대 캐년 5박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6일 \$990+항공 매주 수

캐나다 록키 4박5일 \$1090+항공

엘로스톤 3박4일 \$890+항공

TMCi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March 26,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적인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21세기에 온전하게 시작된 첫 세대

알파세대의 특징과 교수법

베이비 부머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세대(Generation)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렇게 줄줄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한 단어를 썼을 것 같다. 요즘 청소년 층을 지칭하는 젠지(Generation Z)가 한참 주목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알파세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세대는 젠지 청소년층 보다 더 어린 나이이다. 젠지와 무엇이 크게 다를까 싶은데 거기에는 팬데믹이라는 구분자가 이들을 나누고 있다. 현직 교사의 온라인 수기를 중심으로 알파세대에 대해서 알아

2010년 이후 출생한 디지털세대 팬데믹 폐쇄 당시 모두 10세 이하 학습 손실과 발달 정체 겪었지만 연결 중시하고 호기심 많은 특성

중학교 교사인 제시카 키토는 동료 교사들과의 모임에서 게스트 스피커로 나온 앨리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의 감성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딸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알파세대에 속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 제시카도 이 용어를 처음 들었다고 고백했다. 중학교 교사인 제시카는 물론, 그 세대를 자녀로 둔 밀레니얼 세대 학부모들도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 가장 젊은 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우선 교사 시점에서 제시카의 얘기를 들어보자. 알파세대로 나눈 이유가 설명된다. “나는 읽기 쓰기 전문가 코칭 교사로 20년을 보내고 전문성 개발을 제공하면서 이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보았다. 교사들이 급변하는 커리큘럼 추세 및 평가 요구 사항에 대한 불만을 청취하고 읽기 교육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고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하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에 대해서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팬데믹 때 10세 이하였던 세대로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시작한 첫 세대이기 때문이다. 여자 중학생이 아이패드로 학습하고 있는 모습. [bing.com copilot생성]

세대별 출생년도

세대 이름	태어난 연도	별칭
베이비부머	1950~1965	
X세대	1966~1979	
Y세대	1980~1995	밀레니얼 세대
Z세대	1995~2009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MZ세대	1980~2009	Y세대와 Z세대를 합친 세대
알파세대	2010년 이후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

에 완전히 태어난 첫 번째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맥크린들의 지적이 옳다. 이 세대 아이들은 이전의 모든 세대와 다르다. 그러나 알파세대의 아이들이 다른 세대보다 더 이른 나이에 더 많은 정보와 연결

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들을 교육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 세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멈췄을 당시 모두 10세 이하였다. 그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포위된 세상을 경험했으며 이제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 이 아이들은 아마도 걸을 수 있기 전에 아이패드 같은 장치를 손에 쥐고 있던 첫 번째 세대일 것이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를 목격하거나 페이스타임을 통해 멀리 떨어진 가족과 소통하거나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SNS를 통해 친밀한 우정을 쌓는 등 세상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본질적으로 이해한다. 장병희 기자 >> 2면 '알파세대'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아름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다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사건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내가 탈북한 이유 “인간다운 교육을 하고 싶었다”

1940년 무렵이었다. 내가 송실중학 4학년 을 끝내면서 평양 교육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일본의 조선총독부는 평양에 하나 뿐인 송실전문학교와 송실중학교, 송의 여자중학교를 폐교했다. 민족주의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평양의 3송(3崇) 폐교 사건으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그 대안으로 일본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제1 공립중학교, 한국 학생을 위한 평양고보를 제2 공립중학교, 송실학교를 폐교한 대신 제3 공립중학교로 개편하면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함께 공부하게 했다. 기독교 민족주의 학생을 황국(皇國) 시민으로 개조하는 학교로 만들었다.

황국시민 양성에 몰두한 일제의 횡포

송실학교에서 자란 우리를 1년 동안에 일본 국민으로 개조하려는 교육이 어땠겠는가. 또 학생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과 혼란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부모와 사랑으로 한마음이 된 어린애가 증오심에 가득 찬 계모 밑에 사는 1년이었다. 100명 정도의 4학년 학생을 반으로 축소했기에 퇴학당하는 학생 없이 졸업한 것이 다행이었다.

학교 교문 안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할 수 없었고, 민족주의와 기독교 사상도 금지했다. 나 같은 학생까지 교무실에 끌려가 모든 선생이 보는 앞에서 담임 선생에게 이유 없는 구타를 당했다. 기독교 가정 출신이고 기독교학생회 간부로 있었던 이력 때문이다. 내 친구들과 함께 졸업을 못 하게 되는가를 걱정했다.

그 1년 동안 나는 일생에서 최악의 교



그림=김지윤 기자

육을 경험했다. 민족을 사랑하는 전통을, 침략국인 일본 국민으로 바꾸려는 정치 교육이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정치적 인간개조의 수단이었다.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교육이 정치 목적의 수단이었다. 있을 수 없는 교육이었다. 일본 본토 안에서도 그런 교육은 없었으니까.

25세에 북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정치적 안정기가 회복되면서 나 같은 자유주의 지성인은 할 일도 없지만 북 정권에서 본다면 최악의 성분과 반동분자에 속한다. 고향에 조용히 머물면서 주변 농촌 젊은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립중학교를 설립했다. 뜻을 같이하는, 송실학교에 함께 다녔던 대학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

북한 정권의 특수층 세습 교육

그러나 교육환경이나 사회생활 여건으

로 보아 공산정권은 일제강점기보다 더 심한 약조건을 갖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나만 조용히 항일-친일을 떠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산 치하에서는 종교적 신앙까지 지킬 수가 없었다. 공산주의자가 되거나 정권의 노예가 되는 두 가지 길 밖에 없었다.

우리가 뜻한 교육은 공산당원의 감시로 허용되지 않았다. 학생 일부는 민주청년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학교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다. 결국 학교 이사장은 체포되어 수감됐고, 교장인 나도 신변 보장을 받을 수 없어 교육을 단념하고 탈북했다. 사립 교육 자체가 불법이었으니까.

그때 함께 고생하던 교사 전부가 서울에 와서 중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나중에 교장이 되었다. 공산정권은 자유주의자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어도, 종교인은

공산주의자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했다. 소련·중국·북한에서는 종교가 사라졌고, 전통적인 종교 국가는 공산국가가 되지 않았다. 유럽과 미주만이 아니다. 인도와 중동도 그렇다. 사회주의까지는 되어도 종교는 공산국가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북한의 교육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교육다운 교육은 일제강점기 시대보다 더 불가능해졌다. 지금은 공산주의 교육보다 김일성 왕가를 위한 정신교육으로 퇴락했다.

해방을 맞은 뒤 1년이 되면서 우리 마를 북쪽에는 ‘유가족 학교’가 설립됐다. 공산주의와 항일운동에 가담했던 당원들의 가족을 위한 특수학교다. 그 학교 출신이 김일성대학과 김책공대로 진학해 공산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기반은 일찍부터 계획했다. 최고의 성분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 양성의 특수학교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세습적으로 계승하는 특수층 교육기관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공산국가에서는 사상의 자유나 인문학이 설 자리가 없다. 정치 목표와 이념이 절대적 신념과 같이 교육의 지상목표가 된다. 그곳에서 인간교육을 한다는 것은 빙판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이다.

공산국가엔 인문학이 살 수 없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러시아는 100년 동안에 문화 후진국으로 추락했다. 중국은 2500년 동안의 문화 정신적 전통과 유산을 버리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공산국가가 되었다. 북한은 유례없는 인간 상실의 사회로 변했다.

대한민국이 교육의 자유 국가로 출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자유는 선택과 다양한 정신문화의 창조와 함께 이루어진다. 교육을 기반 배경으로 민족 이상이 가능해진다. 지난 70년간의 국가 성장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세계무대에서 경제 10위권에 걸맞은 교육을 위해서는 개혁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지 정치나 경제의 수단 방법이 아니다. 사회 모든 분야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계속되는 인간성 회복과 선한 사회질서 창출이다. 선한 인간성의 완성이 인간적 가치와 사회의 출발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최선의 교육이 역사와 사회의 원천과 희망이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 1면 ‘알파세대’에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알파세대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방식의 일부일 뿐이다. 이 세대의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들의 대부분은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들은 청소년기를 거쳐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면서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 중학교 교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학생들이 현재의 학교 교육 표준에 적응하는 데 얼마나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대화는 교육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많은 교사와 행정가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손실, 행동 문제 및 발달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참여도가 낮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기대되는 학업적

또는 사회적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 좌절감을 느끼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자주 공유한다.

어떤 논의든간에 학생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놓쳤던 시절과 이전 학습 경험의 상실로 인해 현재 학생들의 성공이 얼마나 어려운지로 결론이 난다.

◆알파세대에 대한 우려와 기대

중학교 교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제시카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학생의 수업 참여다. 알파세대의 독특한 강점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알파세대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많은 교육자들이 더 이상 학교 수업에 이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근거다. 이들 세대 중 다수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 중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성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려하면서 연결성, 호기심, 공감 능력 및 변화에 대한 열망을 포함하여 이 세대 학생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세대는 고립무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의외로 글로벌 연결에 대한 깊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첨단 기기를 사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과 쉽게 소통한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청중과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실을 넘어 확장될 수 있어 참여도가 높아졌다.

호기심은 교육자들에게 권장하는 또 다른 알파세대의 특성이다.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게 됐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큰 질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에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면 학생들은 호기심을 적절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사춘기의 불안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공감 능력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말한다. 부분적으로는 성장 단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결성과도 관련이 있다. 디지털 세계를 통해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사람과 아이디어에 노출된다.

물론 단점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사회 생활이 우리 사회 생활과 어떻게 다른지, 온라인에서 주의하는 방법과 훌륭한 디지털 시민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이

러한 학생들이 자신의 이웃과 지역 사회를 넘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많은 숫자가 환경 보호, 흡리스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정을 갖고 있는 것도 풍부한 디지털 생활 덕분이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옳은 것을 위해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육자나 학부모가 비록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가올 일에 대해 그들을 완전히 준비시킬 수는 없지만 그들과 함께 삶의 경험, 지식 및 지혜를 그들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을 어떤 길로 가도록 강요하려는 충동을 극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따라갈 길은 뒷세대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이다.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모든 절약은 한곳에서

2023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평생교육부터 창업까지... 국립대, 지방 '혁신 엔진' 맡는다

국립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다

순천대 기후변화 고교과목 개발
정부 "인재 육성 등 책무성 강화"



지난 1월 10일 전남 국립순천대 실험실에서 지역특화 공동교육과정으로 마련된 '기후변화와 순천만' 수업을 듣는 지역 내 고교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국립순천대]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의 한국교육원대 강의실에는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0여 명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열심히 AI와 '챗팅'을 하고 있었다. '내 자녀를 위한 생성형 AI 이해 및 지도하기' 강의를 수강 중인 학생들로 챗 GPT로부터 좋은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중이었다.

한국교육원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 이 프로그램은 자격증 과정이 아닌데도 개설하자마자 5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한 수강생은 "교육원에서 듣는 수업 시간은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며 "교육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짧아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대학이 지역 발전과 혁신의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학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RISE(지역혁신중심대

학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대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평생교육 ▶지역인재 육성 ▶산학협력·창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뛰어난 국립대들도 있다.

국립공주대는 지난해 11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의를 개설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실제 거래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위험 매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해 호평을 받았다.

지역 유·초·중등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국립대학도 많았다. 국립순천대 환경교육과는 순천교육지원청, 순천만생태교육원, 순천제일고 등과 함께 '기후 변화와 순천만'이라는 지역 특화 과목을 순천 지역

고교의 정규 과목으로 개발했다. 지난해 2학기에 순천고, 순천여고 등 지역 6개 고교에서 16명이 해당 과목을 수강하며 순천만 현장 탐방, 팀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 황태식 순천제일고 교장은 "지역 특화 과목 운영을 통해 지역을 알고 지역을 지키는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주교대는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AI 과학자, 드론전문가, 작곡가, 가수 등을 초청해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초등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진로 등을 상담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부는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국립대의 '책무성'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 인재정책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며 "학령인구 급감

및 지역소멸 등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기여,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다양한 추진 과제를 통해 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과 대학의 공동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는 캠퍼스 특성화, 일반대와 교육대의 통합,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등 혁신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다양한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며 "다른 대학과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립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 정책관은 국립대의 지역 인재 양성 역할을 강조하며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해 융합형 인재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국립대의 교육혁신을 위해 학생의 전공자유선택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재학 중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초 소양과 핵심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며, 대학은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인재양성기관으로 혁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연 기자

눈을 감고 바라보면



김상현의 과학 산책

프랑스의 수학도 루이 앙드레(1888~1971)는 1차대전 참전 중 눈에 충상을 입는다. 불과 19세의 나이에 시력을 잃은 채 전역한 그는, 당시 적분 이론의 대가였던 앙리 르베를 찾아갔다. 돌아온 것은 뜻밖의 조언이었다. "위상수학을 연구해 보세요. 시력이 없어도 영혼의 눈과 집중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요."

위상수학은 20세기에 등장한 기하학의 한 형태이다. 공간과 물체의 변형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느 수학 분야보다도 외형적인 모양을 중요시한다. 앙

드레가 당황한 이유이다. 하지만 그는 조언에 충실했고, 스트라스부르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한다. 그리고 1921년, 현대 위상수학의 교과서에 등장하게 될 '앙드레의 목걸이'를 발견한다. 무한히 많은 고리를 가상의 공간에서 잘 꿰어내면 당시 수학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질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이 발견은 이후 100여년간 이어진 인류의 거대 프로젝트 '3차원 공간의 분류 문제'에서 주춧돌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앙드레 외에도 러시아 수학자의 위인인 레프 폰트리야긴, 접촉 기하학의 대가 엠마누엘 지로 등 많은 위상수학자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레온하

르트 오일러 (1707~1783)는 '오일러 특성수'라는 위상수학의 근간을 만든 수학자의 거인이다. 그는 평생 880여 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시력을 완전히 잃은 50세 이후에 완성하였다. (읽었을 때는 야기를 안고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이뤄냈다고 회고한다.)

인간의 시각은 강력하다. 시공간에 펼쳐진 복잡한 정보를 순식간에 해석해 내는 능력이다. 경이롭게도, 앞을 보는 능력, 즉 시력이 없는 수학자들 역시 정밀한 그림을 상상 속에서 분석하고, 시각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고 있다. 눈을 감고 바라보면, 마음속의 전부가 풍경이 되어 그 반짝이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는 한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까지도?

고등과학원 수학적 교수

'PET'의 의미

12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찾은 동네 편의점에서 받은 충격과 황당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편의점 내 쓰레기통에 'PET'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나는 한국 생활에 대해 잘 몰랐다. 하지만 거의 평생 반려견을 키워온 내 입장에서 그 문구를 봤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상식적으로 동네 편의점에 애완동물을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도, 쓰레기통에 붙어있는 PET이라는 문구는 이방인을 헛갈리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이 케이스를 보더라도 영어권 국가들과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전문 용어의 약자를 흔하게 사용한다. PET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의 약자로 대부분의 투명한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표시하는 고유 명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편의점이나 길거리 쓰레기통에는 플라스틱병을 지정하는 페트병을 버리는 곳을 표시하기 위해 PET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한다. 잘 모르는 외국인이 이를 봤

을 때는 필자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 영어권 국가의 표기는 조금 다르다. 한국의 페트병을 그냥 쉽게 '플라스틱(plastic)' 혹은 '플라스틱병(plastic bottles)'으로 표기한다.

이와 다른 경우도 있다. '비닐(vinyl)'이 그 사례다. 영어에서 비닐은 LP 레코드판 또는 창유리나 파이프와 같은 무거운 플라스틱 재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제품을 지칭할 때만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레코드의 LP판도 영어로는 비닐이라고 칭한다. 반면 한국어로 비닐은 비닐 화합물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뜻하는데, 특히 값싸고 유연한 포장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재활용품 수거 방식도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영미권 국가도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기에 쓰레기 수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런 경우 지방 정부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함께 수거하는데, 이때 재활용 쓰레기들을 따로 분류해 놓지 않아도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닐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할 때 비닐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김 불리 코리아중앙데일리 에디터

공부에 도움되는 팁

◆고교생 시간관리 요령

▶준비 작업=시간 관리를 시작하기 전 현재까지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시간표를 적어보자. 1주일 동안 15분마다 한 번씩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적어 본다. 1주일 후 이 기록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검토해보자. 1. 내가 해야 할 과제를 다 성취하였나. 2. 시간에 쫓기며 과제를 성취했나. 3. 모든 과제를 마감시간에 늦지 않게 성취했나. 4.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나의 습관은 무엇인가. 5.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가장 생산적인가. 혹은 비생산적인가.

▶배역형 vs 올빼미형=대부분 사람

은 하루 중 가장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피크 타임이 정해져 있다. 이 시간은 가장 활기가 넘치고 가장 생산적이며 머리가 가장 맑은 시간을 말한다. 고교생도 마찬가지여서 공부하기 좋은 시간이 있다. 자녀가 새벽형인지 올빼미형인지 빨리 파악해서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엄청난 집중이 가능해져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신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재정보조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재정 보조에 관해서 가장 안타까운 질문은 합격 발표를 받은 후에 이제 재정보조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재정보조 신청 마감을 놓쳐버린 분들을 종종 보게된다.

정시 지원의 경우 합격 통지는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재정보조 마감일이 학교에 따라 1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이고 조기 지원의 경우는 11월 15일인 학교들도 많이 있다.

즉, 재정 보조 신청 마감일은 지원서 제출 마감일과 같지는 않더라도 재정 보조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학교든지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 재정 보조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3월 말부터 4월 초에 합격 통지서와 함께 학교에서 보내주는 재정보조 제안서(financial aid package)를 보고 등록할 학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순서이다.

또한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극빈자의 가정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 재정보조 받기에는 소득이나 자산이 너무 많다고 미리 단정해 버리는 경우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재정보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고 가정의 대학생 수 등, 지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즉 가정의 소득이 같은 10만불이라 해도 가정의 이런 저런 상황에 따라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펍사를 신청해야 학자금 용자의 형태로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보조 신청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재정 보조 신청은 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만 하면 되나요? 하는 질문도 자주 듣는다. 대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매년 신청해야 한다. 펍사는 물론 매년 새로 신청하고 보고 해야 하며 입학 시 CSS 프로파일을 신청해야 하는 학교였다면 학교에 따라 재학



줄리 김
탐에듀피아 대표

생도 다시 CSS프로파일을 내라는 학교도 있고 신입생들만 프로파일을 요구하고 재학생은 펍사만 내면 되는 학교들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적절히 매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족들마다 재정 상황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재정보조 액수가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 형편에 변화가 없고 재정 보조 신청을 제대로 해준다면 매년 비슷한 액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학생은

로서 재정 보조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학교에서 정해 놓은 학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신입생의 경우는 합격한 학생들에게 재정 보조 신청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재학생의 경우는 학위를 받기 위해 학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재정 보조를 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입생 보다는 재정보조 신청 일정이 좀 늦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해당년도 세금 보고를 연기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재정보조 신청이 보다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자금 용자는 부모가 값을 책임이 있는 것인지 묻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용자는 무상보조(그랜트)와는 달리 도로 상환해야 하는 보조 형태로서 학생 이름으로 용자하는 경우와 부모의 이름으로 용자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Federal Plus Loan이라고 불리

는 학부모 용자는 부모가 상환의 책임이 있고 Staff Loan과 같이 학생 앞으로 용자를 받는 경우는 당연히 학생이 졸업 후에 갚아야 하는 것이다. 학생 용자의 경우 학생이 18세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이라도 부모의 코싸인도 없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특수 상황이다.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재정보조 신청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도 자주 듣는다.

학교나 주정부, 연방 정부가 아닌 일반 기업, 단체, 은행 등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스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서 받은 장학금이 있다면 반드시 등록하게 될 대학의 재정보조 부서에 알려야 한다. 불행하게도 외부 장학금이 있으면 그 액수만큼 학생의 재정보조 액수는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용자액이 줄어들게 될지 무상보조액이 줄어들지지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

▷문의 : 703-576-7803, Email : topedupia@gmail.com

내실 있는 성장과 부를 창출하려면 ...기술 개발 넘어 시스템 개발이 핵심

커리어 준비하기

2024년 내 비즈니스의 전문적인 목표는 시스템 구축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현재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하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과 동일한 때가 많다. 이 접근 방식은 하루에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잠재 소득을 제한한다. 이 제한은 의사나 컴퓨터 과학자와 같이 고액 임금을 받는 전문가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내실 있는 성장과 부의 창출의 핵심은 견고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거대 기업을 살펴보자.

맥도날드는 단순히 버거를 파는 곳이 아니라 식품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타벅스는 그저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으

로 두각을 나타낸다. 아마존은 단순한 소매를 넘어 효과적인 상품 배송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이들의 기업 가치는 단순히 제품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일관성 및 지속 가능성에 있다.

이는 미국 교육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강조한다. 숙련된 근로자를 배출하는 데에는 뛰어나지만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에 필수적인 비전 있는 시스템 구축자를 양성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숙련된 근로자는 풍부하지만 수익성과 확장성을 가진 시스템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개인은 부족하다. 그 결과, 청년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직원으로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관심을 주던 의식과 확장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 교육을 추구하라
기업가 정신과 경영학 과정을 추구해야 한다. 비즈니스의 기본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 Coursera, LinkedIn Learning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업계 전문가들의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시스템을 분석하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의 운영을 연구해야 한다. 그들의 시스템화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시스템이 한 개인에게 크게 의존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실제 경험을 찾아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기업의 인

턴십 또는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이론적인 연구가 제공할 수 없는 실질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다.

▶멘토를 찾아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성공한 기업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하라. 비즈니스 행사에 참석하고 조직에 가입하며 시스템 개발과 관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멘토를 찾아 나서야 한다.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라
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혁신적 사고와 문제 해결 기술을 길러야 한다.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비효율성을 발견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작게 시작하여 배우고 적응하라
소규모의 프로젝트로 시작하자. 작

은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만들어 시작하면 다양한 비즈니스 요소를 응집력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배움은 실수하고, 적응하며 시스템 구축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실제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나는 학생들이 순전한 기술 중심의 교육 사고방식에서 시스템 사고의 복잡성과 이점을 인식하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기술 개발보다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는 것이 재정 및 직업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 접근 방식은 개인이 경제 환경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방향을 정하는 힘을 주어 더 큰 자율성, 혁신 및 장기적인 성공으로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제임스 박 대표 · LA 커리어 코칭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물 | 이메일 마케팅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증권사 다니다가 낸 ‘마법의 성’ ... 대박 날 줄 몰랐죠

(멤버 김광진)

30주년 콘서트 여는 ‘더 클래식’ 멤버 박용준, 이수만 소개로 만나 첫 앨범 그해 130만장 팔리며 히트 ‘여우야’ ‘송가’ 등 꾸준히 사랑받아 이젠 어릴 적 보듬는 마음으로 노래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가요계 명곡 ‘마법의 성’이 세상에 나온 지 30년이 됐다. 이 노래가 실린 음반은 1994년 130만장이 팔리며 밀리언셀러가 됐고, 노래는 당시 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가요 1위로 선정됐다.

이 곡으로 데뷔한 남성 듀오 더클래식(김광진, 박용준)은 이후 ‘여우야’ ‘송가’ 등의 히트곡을 냈다. 김광진의 대표적인 솔로곡 ‘편지’ ‘동경소녀’를 비롯해 ‘사랑의 서약’(한동준), ‘처음 느낌 그대로’(이소라) 등도 둘의 합작품이다.

15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만난 더클래식에 ‘마법의 성’ 성공 비결을 묻자, 김광진은 “운이 좋았다. 30년 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용준이를 만난 게 다행”이라고 했고, 박용준은 “광진 형이 멜로디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서로에게 공을 돌렸다.

이들은 오는 30일과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더클래식 30주년 콘서트 ‘1994’를 개최한다. 현재 임영웅밴드 마스터를 맡고 있는 박용준(간반)은 신석철(드럼), 이성렬(기타), 민재현(베이스)으로 밴드를 구성했다. 이성렬과 민재현은 임영웅밴드



더클래식(왼쪽부터 김광진·박용준)은 1994년 ‘마법의 성’으로 데뷔하고 ‘여우야’ ‘편지’ 등 여러 히트곡을 냈다. 30주년 콘서트에선 보컬 김광진 뿐 아니라, 좀처럼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박용준의 노래도 들을 수 있다.

김경록 기자, (사진 캐슬뮤직)

멤버다.

둘은 1991년 한동준 앨범을 준비하고 있던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소개로 처음 만났다. 이들은 서로를 ‘회사(증권사)를 다니며 노래를 쓰는 대단한 사람’(김광진), ‘미디, 신디사이저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자’(박용준)로 기억했다.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나.

김=“김민기 음악이 청년층의 감수성을 지배하던 시기, 대학을 다녔다. 나 또한 그 감성을 안고 ‘연세대 100주년 기념 교내 가요제’에 나갔고, 대상을 받았다. 그때 만난 사람들이 김창기(동물원), 안치환이다.”

박=“고3 때 통기타를 들고 라이브 카페를 찾아다녔다. 이수만과 인연이 닿았고, SM기획(SM엔터테인먼트의

전신)에서 광진 형을 만났다. 이후엔 하나음악(포크뮤지션 조동진·동의 형제가 만든 음반레이블) 멤버로 활동하며 학전에서도 공연했다.”

-‘마법의 성’의 성공을 예감했나.

김=“삼성증권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앨범을 냈다. 노래가 이 정도로 대박 날 줄은 몰랐다. 당시 삼성그룹 행사에 ‘차출’돼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특이한 인생을 살았다.”

박=“‘마법의 성’은 성공했지만, 살인적인 세션 스케줄 때문에 쪽잠 자며 녹음실을 전전하는 생활이 달리지 않았다. 때론 음악이 미워지기도 했다.”

더클래식의 최근 앨범은 2014년 20주년을 기념해 만든 ‘Memory & A Step’이다. 두 사람은 “노래를 자주 내고 활동하는 그룹이 아닌데도 유명한 노래들이 많다는 건 행운”이라고 입을 모았다. 30주년을 기념해선 3집 ‘헤피아-워’(1997)

의 한정판 LP를 제작했다. 공연 이후엔 신보도 준비하기로 했다.

-30년 활동하며 느낀 음악시장의 변화는.

박=“러닝타임이 점점 짧아지고,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음악이 없는 것 같다. 변화를 실감하지만 따르진 않는다. 우린 지난 30년간 눈치 보지 않고 음악을 해왔다.”

김=“K팝이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 갈 줄은 몰랐다. 우리 음악의 잠재력을 너무 간과했던 것 같다. 최근 미시간대학교 동창회에 다녀왔는데, K팝 인기 덕분에 사람들이 내게도 관심을 많이 보여 신기했다.”

-지난해 데뷔 후 처음으로 페스티벌에 참여했다고.

김=“‘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의 초대 를 받아 다녀왔다. 야외 무대에서 다양한 연령대 관객과 호흡했던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박=“다른 가수 콘서트는 연주자로 참여하는 거라 부담이 덜한데, 페스티벌에선 내가 주인공이니 관객 반응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와 놀랐다.”

-나이 들어 히트곡을 다시 부르는 기분은.

박=“20대엔 사랑의 어린 감정을 담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에 답이 돌지 않더라. 20대의 마음으로 부르진 못하지만, 그때의 어린 나를 보듬어준다는 마음으로 노래한다.”

김=“유튜브에 있는 우리 노래에 다양한 연령대가 각자의 이야기를 적고, 공감하더라. 그런 글들을 보며 더 오래 음악해도 되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사실 ‘마법의 성’이 생각 이상의 대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후 노래들은 다 망했다고 여겼다. 그래서 음악을 한동안 하지 않았다. 지난해 젊은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것이다.”

황지영 기자



“손흥민 봐야지” 태국팬 열광... 10배값 암표까지 등장

안방에서 자존심을 구긴 한국 축구대표팀이 태국과 리턴매치를 벌인다.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6일 오후 9시30분(한국시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태국을 상대로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3차전에서 한 수 아래의 태국과 1-1로 비겨 체면을 구겼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등 유럽파 스타 선수들이 모두 뛰었지만, 전반 42분 터진 ‘캡틴’ 손흥민(토트넘)의 골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태국은 국제축구연

맹(FIFA) 랭킹 101위로 한국(22위)보다 79계단이나 아래에 있는 팀이다. 한국(승점 7:2승1무)은 간신히 조 선두를 지켰다.

황선홍호는 지난 22일 늦은 오후 태국 방콕에 입성했다. 서울에서 보여준 아쉬운 경기력에도 현지에서의 인기는 대단했다. 입국장에는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를 보기 위해 몰려나온 태국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은 한국 선수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유니폼, 현수막, 플래카드 등을 흔들며 환호를 보냈다. 특히 손흥민이 모습을 드러내자 공항 여기저기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팬들의 소리가

크게 들렸다. 태국은 아시아에서도 유럽 축구의 인기가 뜨거운 나라로 유명하다.

태국 내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손흥민은 현재 A매치(국가대항전) 45골(124경기)로 2위 황선홍(50골)과 1위 차범근(58골)을 넘어 한국 역대 최고 골잡이에 도전 중이다. 홍명보(136경기)가 보유한 A매치 최다 출장 기록에도 바짝 다가섰다. 태국 팬들은 이런 손흥민의 플레이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콕 현지에서는 입장권 가격의 10배가 넘는 금액에 암표가 거래



손흥민이 22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국제공항에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되고 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지난해 7월 태국 프리시즌 투어 경기를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치를 예

정이었지만, 폭우로 인해 경기가 취소됐다. 당시 손흥민은 선발로 나설 예정이었다.

피주영 기자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귀신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3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음악 전공자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① 위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코웨이 코디/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 (DC,MD,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력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드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 Email: employehire1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문의: 571-348-3723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서 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 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 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 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밑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급휴가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력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활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활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급휴가/리셉션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급휴가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급휴가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술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스시 & fried
chicken / 파트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페셔널/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바버/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아난데일 헤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 (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룬 렌트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세탁/얼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어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엘리엇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윈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엇시티.
410-750-048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중앙일보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프!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견제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프, 전기기술자, 무경험가능
973-997 3012

성정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구인/구직>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프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2/13 and 2/14) 동안 일하실분 구합니다. 이메일: joymiah0629@gmail.com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브래더우드,
202-271-2726

버크 테렌도 사범/보조사범 (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시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가능자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첼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밤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 하실분 파티타임 남여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애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텍,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시먼트 (화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 3.5.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 2 리버힐 학군
410-599-1800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세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4 화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말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매나사스 H-mart 근처 타운홈 방렌트 walkout 1층 전체, 밝고 깨끗한 큰방, 주방(간단한 취사), 욕실, 세탁실, 주차편리, 별도 출입문, 인터넷, 유모, 비흡연자
703-400-4520

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 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렌트 (방 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703-336-3283

노스 포트맥, NIST 근처 싱글홈 방 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 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애난데일 한 공간에 방, 욕실, 키친이 꾸며져 있고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구비
571-232-6052

버크 월마트 도로로 5분 깨끗하고 환한 타운하우스 1층, 방1, 화장실1(냉장고/세탁기/전자렌지/싱크/옷장/식탁) 워크아웃, 주차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4월 15일 이후 입주가능
202-505-0678 (문자 문의 바람)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그랜마트 6분 롯데 11분, 오래게실분
702-622-8853

애난데일 H-mart 옆 방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유모 \$800 직장 다니는 남자 환영. 3월 말 입주
703-975-0123

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 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가능. 방세 저렴, 큰방, 1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 렌트 욕실 가구 완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 981-7615 (문자)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1, 취사 세탁 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지하실 방1, 화장실1
703-887-5173

조용한 로턴(페어팩스)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지하전체(방3개) 넓은 리빙룸, 인터넷, 유모,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571-488-5860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애난데일 방1, 화장실1, 애난데일 도서관 옆, 잠만 주무실 직장인 / \$600
703-350-1986

페어팩스 50번도로와 66도로사이 비엔나역 근처 방 렌트. 남자 직장인 환영
571- 530-7322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비즈니스 커머셜 리스팅

- ▶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상점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 ▶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 개발 중인 진입로에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 *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평원, 샴플,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 ▶ **싱글 \$520,000~590,000**
방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시먼트
- ▶ **타운하우스 \$440,000**
방3, 화 2.5, 1car 거라지
- ▶ **콘도 Main level \$300,000**
방3, 화2, 콘도 Fee \$260/월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쓰이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자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파울,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 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파울,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오피스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엡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집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엘터레이션 가능한 한 부,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쨌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더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싯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8.000 / 10.000 / 12.000(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챗블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모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피아노(Everett)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한 분 문자주세요.
Tel. 571-668-0805

허리 운동하는 꺼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 드라이버 9.5도 315cc
- 아연 닉켄트 4-9 SP번까지 8개
- 단랍 (스페인제) 3-9 PS 7개
- 요넥스 6-9 P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2012 Hyundai Santa Fe 6 Cylinder
SUV Silver (현대산타페 은색) 82,500 mile
Good condition \$8,500
703-350-1986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추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 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더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콜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콜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드벨라보석(센터발,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드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벨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일룩 제거, 브러쉬, 파워풀 청소. 응급 수해복

구미 타일 플로워웍스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다쉬워시,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 P, 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겨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입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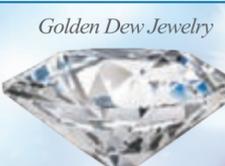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마이클 장

NMSI Inc. NMLS #201332

- ▶ 주택용자
- ▶ 상업용자
- ▶ 재정상담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haron: Alex, I want you to pair up with Trevor to organize the conference.
새런: 알렉스 트레버와 함께 회의를 준비해줬으면 해요.
Alex: Oh, please. I can't work with him.
알렉스: 이런 제발요. 전 트레버와는 일할 수가 없어요.
Sharon: Why not? What's the deal?
새런: 왜요? 무슨 일인데요?
Alex: He's rude and he thinks he knows

everything.
알렉스: 그는 무례하고 뭐든지 혼자 다 안다고 생각해요.
Sharon: I had no idea.
새런: 전 모르고 있었군요.
Alex: It's true. He really gets on my nerves.
알렉스: 정말이에요. 아주 거슬린다니까요.
Sharon: So what am I going to do?
새런: 그럼 어떻게 한다?
Alex: I'd like to work with Jen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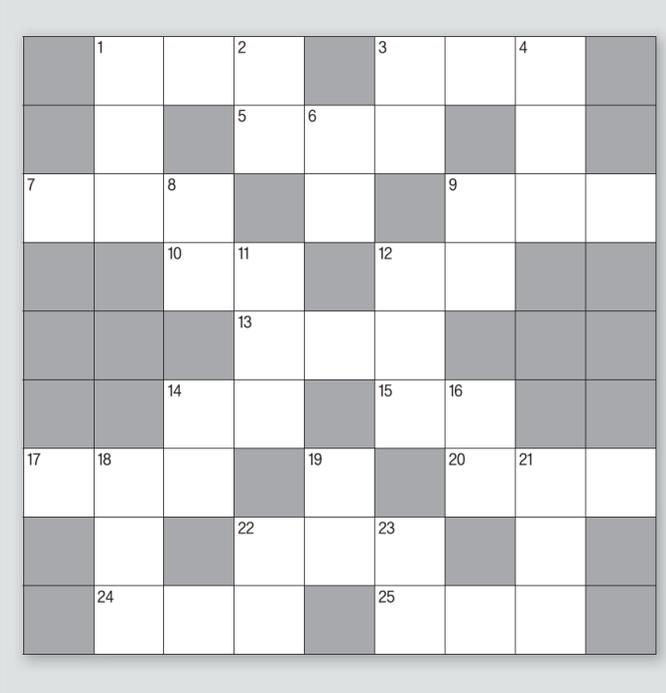
what's the deal? ; 어떻게 된 일입니까?

(Alex is talking to his supervisor Sharon...)
(알렉스가 수퍼바이저 새런과 얘기한다...)

알렉스: 전 제니하고 일하고 싶은데요.
Sharon: All right, I'll call her.
새런: 좋아요. 전화할게요.
Alex: Thanks, Sharon. I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알렉스: 고마워요 새런. 이해해줘서.
.....
기억할만한 표현
▶ pair up (with someone): ~와 짝짓다, 함께 힘을 모으다

"We were paired up on the last project."
(우리는 지난 번 프로젝트 때 함께 일했습니다.)
▶ to have no idea: 전혀 모르다
"I have no idea how to fix my car."
(전 차 고치는 일은 정말 몰라요.)
▶ get on (one's) nerves: ~의 신경을 거스르다, 괴롭히다
"Her whining is getting on my nerves."
(그녀의 불평은 듣기가 괴롭습니다.)

날말퀴즈



가로열쇠

(1) 농작물 특히 벼의 잎을 갇아먹는다. ~ 떼가 동아프리카를 덮쳐 케냐,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국경을 초월한 대재앙으로 번졌지요 (3) 먼저와 닿는 차례 (5) 비좁은 방에서 여럿이 모로 끼여 자는 잠 (7)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어지는 비탈진 곳. 2번 홀은 심한 ~, 4번 홀은 내려가다가 다시 오르막으로 이어진다 (9) 겉보다는 실속이 있는 부자. 검소한 옷차림의 그는 겉모습과는 달리 ~로 소문이 나 있었다 (10) 임금의 시중을 들거나 숙직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원. ~가 되려면 남성 상징을 거세해야 한다 (12) 낮은 관직이나 지위로 떨어지거나 외직으로 전근됨 (13) 몸을 오른쪽으로 90도 틀어 돌아서라는 구령 (14) 구이를 할 때 쓰는 조리용 기구 (15) 가슴 한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 (17) 동양화에서,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 (20)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뼈의 퇴행성 변화 등 중년 이후에 문제되는 병 (22) 음식 배달을 할 때 쓰는 양철로 된 통 (24) 남편을 여인 여자 (25) 물 속에서 사는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세로열쇠

(1) 산올림 (2) 베고픔과 목마름. ~이 들다 (3) 깊이 들지 못하거나 흡족하게 이루지 못한 잠 (4) 눌러서 굳이지 아니한 두부. 양념장을 뿌려 먹는 뜨끈한 ~ 요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죠 (6) 이가 부서지거나 몸시 아픈 증상 (8) 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9) 재산 가운데 가장 값나가는 물건. 음식 가운데서 제일 맛있는 음식 (11)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 (12)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 아버지는 <정직하게 살자>는 ~을 실천하려고 항상 노력하셨다 (14) 돌과 돌, 돌과 쇠가 맞부딪칠 때 일어나는 불. 전광 ~ (16) 신이나 부처에게 지성으로 빌. 서낭당 앞에서 딱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점지해 달라고 ~을 드리고 있다 (18) 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데 쓰는 물건. 예전에는 ~외의 열매 속이나 짚 따위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화학 섬유로 만든다 (19) 짚으로 지붕을 인 집 (21) 찹쌀을 찌서 떡매로 친 다음 네모나게 썰어 고물을 묻힌 떡 (22) 몸이나 힘이 무쇠처럼 강한 사람 (23) 곡식을 찧거나 빻는 기구. 물레 ~

스도쿠

		1	8	7		2	
3				2	1		7
2	4			6			
4	7	3			8	9	5
			6	3		4	
	5					8	1
	1			5		2	9
		6			2	8	1
	2	9			7	6	3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8	9	7	8	1	6	2	5
5	1	8	2	6	4	9	3	7
6	7	2	9	5	3	4	1	8
1	8	3	6	4	7	2	5	9
2	4	7	5	3	9	8	6	1
9	5	6	8	1	2	3	7	4
8	6	1	3	9	5	7	4	2
7	9	4	1	2	6	5	8	3
3	2	5	4	7	8	1	9	6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_____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매매

Hybrid Battery

Recondition Shop
Relocation 가능
쉬운운영,무경험자 가능
San Jose지역, 가 55만
(714)552-5714

스시/일본국수 식당

변화된 사평물안, 4000SF
BBQ와 데리아끼 시설완비
전체리모델링, 트라이아시터 워싱턴주
가격 23만 (네고가능)
기술전수 (206)499-0507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레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Line of credit 기계장비론
간단하고 빠른 용자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SBA 7(a) 용자 기계장비 담보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10년 상환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마 살매
Up to 40% 할인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마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마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삼삼음육탕 도안역사탕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담임목사님 청빙공고 알래스카 앵커리지(Alaska Anchorage)에 위치한 알래스카 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1. 청빙 조건:
- CRC 교단이 인정하는 개혁신학의 신학교(장로교단)를 졸업 후 CRC 교단 소속이시거나 CRC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으로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목사 사역과 부목사 사역으로 5년 이상의 목회사역의 경험이 있으신 분
- 성경적 신앙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50대 전후이신 분
- 현재 미국 거주 중이며 취업에 걸려사유가 없는 분

2. 제출 서류:
- 한글 이력서 (가족사항/본인사진과 가족사진)
- 자기 소개서 (성장 배경/신앙고백/목회경험/목회비전 간단명료하게)
-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졸업증명서
- 목사 추천서 2부 (추천자의 연락처 명시: 전화번호, e-mail) (추천자가 추천서를 직접 본 교회로 송부)
- 소속된 교단에서 발행한 안수증명서
-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1편(온라인 링크 및 설교원고 포함)
▶ 첨부 파일(서류들)은 모두 PDF파일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3. 추가 사항:
- 제출된 서류 : 제출된 서류들은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마감일 : 2024년 4월 30일
- 보내실 주소 : sungkwankim0105@yahoo.com kwanghwangak@gmail.com

참고 - 서류 심사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 방문 설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주소 알래스카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
709 W. International Airport Rd. Anchorage, AK, 99518

전화 (907) 632 - 3579, (907) 947 - 5645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